



PHI 2014 Young Fellow Report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4 영펠로우 연구보고서



한국사회복지분야 불평등 연구 동향 및 쟁점 고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People's Health Institute

2014 영펠로우 이 응

영펠로우 프로그램 소개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영펠로우 프로그램은...

진보적 담론 생산 활동, 대안적이고 사회운동지향적인 연구 활동의 후속세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펠로우십 기간은 1년으로 현재 6기 영펠로우들이 활동 중입니다. 펠로우십 자격은 석사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이거나 박사과정 재학생으로, 전공과 관계없이 강문제에 관심이 있는 이는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영펠로우는 매월 소정의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으며, 시민건강증진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과 강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펠로우로 활동하는 1년 동안 독립적 과제를 수행하거나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연구 과제에 참여하여 2편 이상의 성과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보고서의 저자인 이웅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4년 영펠로우로 활동했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영펠로우 기간 동안 이 연구 이외에 <근거기반의 음주량 감소 정책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한겨레 <건강렌즈로 본 사회> 서리풀 연구통 집필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연구 관심사는 장애와 노화, 불평등, 그리고 사회 서비스입니다.

글머리에

2014년도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영펠로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인 불평등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불평등을 비롯하여 건강, 정책, 연구방법론 등 다양한 배움을 얻었고, 이 글은 지난 1 년간의 고민과 노력, 그리고 많은 분들로부터의 가르침에 대한 작은 결과물입니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불평등과 복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일까요? 연구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로 부터 왜 사회복지에서는 불평등문제를 (잘) 다루지 않는냐, 다룬다면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실력을 갖춘 학자도 아니지만, 연구자로서의 강한 호기심과 사회복지전공자로서 일종의 작은 책임감이 생겨나면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앞선 질문들에 대한 부분적인 답변입니다. 즉, 사회복지분야에서 불평등 문제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일종의 탐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발현되기 시작했던 1997년 IMF 이후부터 지난 2014년까지 한국사회복지분야에서 불평등을 다룬 논문들을 검토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분석과정에서의 오류나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아직은 한국사회복지분야의 불평등 연구가 양적·질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이 연구보고서의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 불평등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보다는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하고, 실제로 나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이 짧은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한국사회복지분야에서의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지고, 관련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불평등은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다루어져 왔다. 그 이전에도 불평등은 존재했지만, 외환위기는 한국 사회에 보다 심각한 구조적 불평등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문적 차원에서 현실의 불평등에 대해 연구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불평등과 같은 현실의 사회문제는 학문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어떤 학문도 삶의 의미와 방식, 공동체, 개인의 이익과 복지, 그리고 (사회)제도 등과 같은 현실로부터 분리된 채 기능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학문적 차원에서의 불평등 연구가 현실의 불평등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반영해왔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불평등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불평등 연구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본래의 궁극적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평등의 해소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복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양한 사회문제와 현상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의 기능적·정치적 대응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복지의 다양성과 실천적 특성은 불평등과 높은 정합성을 갖는다.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사회복지를 확대·강화한 역사적 사실은 불평등이 만연한 오늘날 사회복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불평등에 대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기준으로 평등

주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그리고 자유(지상)주의 등 각각의 관점에서 불평등에 관한 논의 및 쟁점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스웨덴 출신 사회학자 테르보른이 제안한 세 가지 불평등 유형(생명력, 실존, 자원 불평등)을 중심으로 불평등 개념 및 특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후, 앞선 논의들을 토대로 한국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불평등 연구동향 및 쟁점을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불평등 연구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향후 한국 사회복지분야의 불평등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에 필요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불평등에 관한 논의 및 쟁점 고찰

(1) 평등주의

평등주의(egalitarianism)란 ‘모든 인간은 그 본질적 가치에 있어 동등하고, 사회에서 권리나 위세를 획득할 균등한 기회를 갖는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즉, 평등주의는 말 그대로 “평등”을 최고의 가치 혹은 이념으로 여긴다. 대부분의 평등주의자들은 모든 인간의 평등을 강조하면서 나아가 무엇에 관한 평등인가에 관해 다양한 견해를 피력해 왔으며, 성, 인종, 피부색, 신체적 특성 등과 관련된 자연적 차이와 시민권, 종교, 신분 등과 관련된 제도적 차이 등에 의해 차별받아서 안 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평등주의 사상가로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와 칼 마르크스(Karl Marx)가 있다. 루소는 근대적 의미에서 불평등을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최초로 탐구하기 시작했으며, 나아가 마르크스의 사상에 중요한 원천을 제공한 학자이다. 마르크스의 경우, 불평등 연구가가 아니

있다고 평가되기도 하지만, 분명히 마르크스 연구의 여러 측면들은 불평등 분석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이 불평등과 부자유이며, 그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 및 이데올로기적 장치들을 거느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2)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란(liberal egalitarianism) 자유는 평등과 상호 제약적이며 동시에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동시에 평등은 사회구성원들의 실질적 자유를 확대할 수 있다는 신념체계를 의미한다. 예컨대,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는 원칙적으로 재산권과 시장정책을 지지하며, 동시에 사회적 평등의 추구를 위해 국가 개입과 적극적 복지정책을 지지하고 정당화한다. 이러한 평등과 자유의 조화를 위한 학문적 차원에서의 노력은 롤즈에서부터 출발해 드워킨을 거쳐 이론적으로 보다 완성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

롤즈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로 분류되지만, 그에게 자유란 평등과 상호제약적이고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평등 이념을 통해 자유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를 개진한 선도적 평등 철학자이다. 하지만 롤즈가 현대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를 선도했다고 한다면, 드워킨은 이를 본격적으로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드워킨의 경우, 자유와 평등을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평등에는 이미 자유라는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3) 자유(지상)주의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란 말 그대로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상 체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사상의 대표적인 학자로 로버트 노직을 들 수 있다. 롤즈가 자유주의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재분배 문제에 관심을 보인 반면, 노직은 철저히 개인의 자유에만 주목한 철저한 자유지상주의자이다. 노직과 같은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자유는 ‘사실에 관한 명제’이기 때문에 자유의 제한은 곧바로 자유의 손실이나 억압으로 이어지지만, 평등은 경험과 분리된 ‘추상적’ 이념이므로 ‘법 앞의 평등’과 같은 형식적 평등만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자유지상주의에서는 자유와 소유를 동일시하며, 자유를 포함한 모든 권리들은 소유의 형태들이고, 소유는 그 자체가 자유의 한 형태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자유지상주의 하에서 사유재산에 기초한 시장질서는 자유를 구체화한 것이 된다.

결과적으로 노직이 주장하는 정의론의 핵심은 소유권리론을 바탕으로 하는 최소국가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들은 모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주요 장치였던 것이다.

2) 불평등의 개념, 특성 및 유형

1) 생명력 불평등

생명력 불평등이란 사회적 구조에 속한 인간 유기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을 의미한다. 이는 사망률, 기대수명, 건강수명(심각한 질병 없이 살 수 있는 기간)과 출생 시 몸무게와 특정 시기의 신체 성장과 같은 아동 건강에 관한 다양한 지표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생명력 불평등은 실업, 교육 및 소득수준, 인종 및 성차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명력 불평등은 교육수준, 직업계층, 소득수준, 재단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건강상의 차이를 의미하는 건강불평등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2) 실존적 불평등

실존적 불평등은 자율성, 존엄성, 자유의 정도, 존중받을 권리, 자아를 개발할 권리 등 인격과 관련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배당의 불평등을 의미한다. 실존적 불평등은 1923년 영국의 관습법이 캐나다 여성들의 인격에 대해 임신과 관련된 법률적 해석을 내리면서 논란이 되었는데, 당시 영국법은 여성을 “고통과 형벌의 측면에서 인간일 뿐, 권리와 특권의 측면에서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정의했다. 테르보른은 실존적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규범, 조정과 담론, 사회적 상호작용의 유형, 권력자의 언행, 의사와 같은 전문 지식인의 관행 등을 조사하는 한편, 인터뷰와 일반 사회조사 등을 통해 제약과 굴욕에 관한 개인적 경험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자원 불평등

자원불평등은 행위자로서의 인간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공평하게 제공받지 못하는 불평등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자원불평등에 관한 논의는 첫 월급이 들어오면서 시작되며, 처음부터 갖고 태어나는 자원 불평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간 활동에 필요한 자원은 매우 다양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초의 자원은 부모의 재산과 지식, 그리고 그들의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자원불평등에는 소득, 교육, 재산, 권력, 그리고 사회적 관계나 접촉 등 다양한 개념의 자원들이 포함되지만 이 가운데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는 교육을 단순히 사회의 측면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회자본 혹은 문화자본으로서 교육의 증대된 영향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소득은 여전히 자원불평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사회적 연구 혹은 자본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관계의 측면 역시 오늘날 자원불평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진다. 또한 권력은 인간 활동에 미치는 힘이 대단한, 돈과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불평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권력은 다양한 종류의 통치 제도, 즉 권력의 구도와 관련해서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한국사회복지분야 불평등 연구동향 분석

1) 시기 별 불평등 연구 동향

1997년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인 2014년까지 18년 동안 한국사회복지분야의 불평등 연구 논문은 총 53편으로 나타났다. IMF 시기인 1997년에는 1편의 불평등 연구가 이루어졌고, 1998년 2편, 2000년 1편, 그리고 1999년과 2001년에는 불평등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각 해마다 2편씩의 불평등 연구가 수행되었고, 2006년에는 한 편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2) 유형 별 불평등 연구 동향

테르보른이 제시한 세 가지 불평등 유형을 기준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생명력 불평등 연구로 분류된 논문은 전체 53편의 연구 가운데 14편으로 26.42%의 비중을 나타냈다. 생명력 불평등 연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불평등 연구가 14편 가운데 10편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71.43%), 의료불평등 연구 3편, 정보불평등 연구 1편으로 각각 분류되었다. 다음으로 직접적인 실존적 불평등으로 분류된 논문은 정신지체 장애인 혹은 부랑인 시설 수용자에 대한 강제불임과 생명권력에 관한 논문과 여성의 가정 내 성평등도를 다룬 연구 등 총 2편이 분류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원불평등으로 분류된 논문은 전체 53편 가운데 31편으로 58.49%로 전체 불평등 연구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전체 자원불평등 연구 31편 가운데 소득불평등 연구가 28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0.32 %). 다음으로 소비불평등 연구 2편과 교육불평등 연구 1편이 각각 이루어졌다.

3) 연구방법 별 불평등 연구 동향

한국사회복지분야 불평등 연구의 연구방법 별 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험적 연구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그리고 혼합방법론 연구로 구분하였으며, 비경험적 연구의 경우 문헌 연구나 개념화 연구 등을 포함한다. 경험적 연구의 경우,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총 53편의 불평등 연구 가운데 48편이 양적연구로 분류됨으로써 약 90%의 불평등 연구가 양적방법을 통해 이루어진 걸 알 수 있다. 질적 연구의 경우, 2012년에 1

편 이루어졌고, 2011년에는 혼합방법론 연구가 1편 이루어졌다. 반면, 불평등 연구에서 비경험적 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총 3편이 이루어졌다.

4) 학술지 『한국사회복지학』 연구주제 동향 탐색(2013-2014)

본 절에서는 한국사회복지학회지의 최근 2년 동안의 연구대상 및 주제 동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복지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학술지인 『한국사회복지학』을 선택하였다. 분석기간은 2013년과 2014년의 최근 2년이며, 총 105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2년 동안 한국사회복지학회지에 실린 논문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구주제는 ‘사회참여 및 적응’으로 총 105편의 논문들 가운데 16편을 차지했다(15.24%). 다음은 ‘사회복지 종사자 직무관련’으로 전체 105편의 논문들 가운데 10편으로 나타나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9.52%). 세 번째는 ‘사업 및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폭력 및 학대’로 전체 105편의 논문들 가운데 9편으로 각각 나타났다(8.57%). ‘건강’의 경우, 전체 105편 가운데 총 8편(7.62%)이 검색되었고, ‘척도 개발 및 연구방법론’과 ‘삶의 질’이 각각 6편으로 나타났다(5.71%). 이외에 ‘양육경험’, ‘돌봄 및 서비스’, ‘노동시장 및 취업’, ‘일·가정 양립’이 각각 5편으로 나타났고(4.76%), ‘빈곤’과 ‘사회복지실천’이 각각 4편(3.81%), ‘복지시설 및 지역사회’가 3편(2.86%), ‘기부’가 2편(1.90%)으로 각각 나타났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 및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사회복지분야에서의 불평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주요한 목표가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여 불평등을 제거 혹은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불평등에 대한 관심은 ‘필요’라기보다는 오히려 ‘의무’에 가까울 것이다. 따라서 향후 사회복지연구에 있어서 현실의 불평등에 대한 학문적 차원의 관심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둘째, 테르보른의 불평등 유형에 기초하여 연구동향을 분류한 결과, 한국사회복지분야 불평등 연구는 자원불평등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생명력이나 실존적 불평등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따라서 향후에는 자원 불평등 뿐만 아니라 생명력 불평등과 실존적 불평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보다 개방적이고 열려있는 학문적 태도와 풍토가 조성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방법에 있어서 지니계수나 엔트로피 지수 등과 같은 지수(index)를 활용한 계량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불평등이라는 개념은 매우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특정 연구방법만으로 불평등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불평등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사회복지실천의 측면에서 질적 연구방법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 차례 >

요약	i
1.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및 내용	4
3) 연구방법	5
4) 연구 제한점	7
2. 이론적 배경	8
1) 불평등에 관한 논의 및 쟁점 고찰	8
(1) 평등주의	8
(2)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12
(3) 자유(지상)주의	18
2) 불평등 유형 및 특성	21
(1) 생명력 불평등	23
(2) 실존적 불평등	25
(3) 자원 불평등	26
3. 한국사회복지분야 불평등 연구동향 분석	27
1) 시기 별 불평등 연구동향	27
2) 유형 별 불평등 연구동향	29
3) 연구방법 별 불평등 연구동향	32
4) 학술지 『한국사회복지학』 연구주제 동향 탐색(2013-2014)	39
4. 결론 및 제언	41
참고문헌	49

< 표 차례 >

<표 1> 시기 별 불평등 연구 논문 수	28
<표 2> 유형 별 불평등 연구 동향	30
<표 3> 연구대상으로 개념화된 실존적 불평등 연구 분류	32
<표 4> 연구방법 별 불평등 연구 동향	33
<표 5> 양적 연구논문의 연구방법 분류	38
<표 6> 학술지 『한국사회복지학』 연구주제 분류(2013-2014)	40

< 그림 차례 >

[그림 1] 분석 틀	6
[그림 2] 시기 별 불평등 연구 논문 수	28
[그림 3]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	34
[그림 4] 집중지수	36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이 글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복지분야에서 이루어진 불평등 연구의 동향 및 쟁점을 고찰하고, 향후 불평등 연구의 과제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7년 이전에도 불평등은 존재했지만, 외환위기는 한국 사회에 보다 심각한 구조적 불평등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광영, 2004, 217-240; 이상봉, 2009; 이창근 외, 2009).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에는 주로 소득불평등 연구에 집중되었다면, 점차 소득을 비롯하여 건강, 교육, 주거, 젠더 등 불평등의 다차원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불평등을 주제로 다룬 연구의 총량은 불평등 현실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방법론적으로는 주로 양적 연구에 편중되어 있다.

오늘날 불평등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특히, 한국의 불평등은 매우 심각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신광영, 2013, 9-12; 이정우, 465-499). 무엇보다 불평등이 문제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윤리적 측면에서 옳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불평등은 가난한 사람과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Therborn, 2013, 25). 하지만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불평등이 문제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이웅, 임란, 2014, 94-95).

먼저, 불평등은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이다(George & Widing, 1985, 124-128; Stiglitz, 2012 202-208). 이러한 맥락에서 뒤르케임(Durkeim)은 ‘경제’와 ‘사회’ 간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들로 ‘환경’과 ‘사회적 불평등’을 들고 있다(방하남 외, 2004: 3-4).

두 번째 이유는 불평등이 다양한 사회문제를 양산해내는 핵심요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에서 불평등은 범죄(Fajnzylber & Lederman, 2002; Kelly, 2000; Wilkinson, 2005; Wilkinson & Pickett, 2010; 변재욱 외, 2013; 이철·장안식, 2009), 행복(Graham & Felton, 2006; Ferrer-i-Carbonell & Ramos, 2012; Wilkinson, 2005; 이양호 외, 2013), 건강(Marmot, 2004; Wilkinson, 2005; Wilkinson & Pickett, 2010; 강영호, 2003; 강영주·정광호, 2012; 조홍준, 2003), 그리고 정치·사회적 갈등 및 신뢰(Muller, 1993; Wilkinson, 2005; 강우진, 2012; 김봉석, 2008; 김상돈, 2011)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불평등 수준이 높아지면 범죄와 갈등 수준이 높아지며, 반대로 행복과 신뢰 수준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의 불평등에 대해 학문적 차원에서의 연구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불평등과 같은 현실의 사회문제는 학문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Pinker, 1971, 44). 다시 말해서, 어떤 학문도 삶의 의미와 방식, 공동체, 개인의 이익과 복지, 그리고 (사회)제도 등과 같은 현실로부터 분리된 채 기능할 수는 없다(박영신, 2010, 29-30).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학문적 차원에서의 불평등 연구가 현실의 불평등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반영해왔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불평등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불평등 연구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본래의 궁극적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평등의 해소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란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에 주된 관심이 있는데, 이는 평등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다(김태성, 2009, 3).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철학자 롤스

(Rawls, J)는 사회복지를 달성하기 위해 불평등 그 자체를 없앨 필요는 없지만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은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Fitzpatrick, 2001, 49). 따라서 불평등에 대한 관심과 관련 연구의 수행은 사회복지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의 역사는 곧 사회 불평등의 역사이며 그러한 불평등을 둘러싼 잠재적 또는 실질적 갈등의 역사인 것이다 (Mishra, 1981, 105).

두 번째는 사회복지 혹은 복지국가의 발전에 관한 원인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들¹⁾이 존재하는데(김태성·성경룡, 2000, 129-164), 이들의 공통점은 사회복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양한 사회문제와 현상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의 기능적·정치적 대응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예컨대, 사회복지는 산업화와 자본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대응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대표적인 사회문제인 불평등과 사회복지는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사회복지의 다양성과 실천적 특성에 있다. 기본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사회복지에는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사회서비스 등 5대 기본 영역으로 두고 있으며, 이외에도 조세, 노동, 환경, 문화, 교통 등을 포함하고 있다(김태성·홍선미, 2006, 16). 이러한 사회복지의 다양한 영역들은 불평등의 다양성과 맞물려 불평등 해소를 위한 효율적 대응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에는 불평등에 대한 원인 분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적 기법들을 갖추고 있다. 즉, 사회복지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상황을 개선하도록 돕는 구체적인 실천적 개입이며, 나아가 보다 큰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Gray and

1) ①산업화 이론, ②독점자본 이론, ③ 사회민주주의 이론, ④이익집단 정치이론, ⑤국가중심적 이론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태성·성경룡(2000, 129-164) 참조.

Webb, 2009, 3-4). 이처럼 사회복지의 다양성과 실천적 특성은 불평등과 높은 정합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불평등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사회복지를 확대·강화한 역사적 사실(Esping-Andersen, 1990, 37-42; Mishra, 1981, 15-24; Pierson, 1994, 22; Rimlinger, 1971, 16; 김태성, 성경룡, 2000, 30-41; 정원오, 2010, 38-59)은 불평등이 만연한 오늘날 사회복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불평등에 대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기준으로 평등주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혹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등 각각의 관점에서 불평등에 관한 논의 및 쟁점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테르보른(Therborn, 2013)이 제안한 세 가지 불평등 유형(생명력, 실존, 자원 불평등)을 중심으로 불평등 개념 및 특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후, 앞선 논의들을 토대로 한국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불평등 연구동향 및 쟁점을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불평등 연구의 현 주소를 파악하여 향후 한국 사회복지분야의 불평등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에 필요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및 내용

첫째, 불평등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 및 쟁점들을 고찰한다.

둘째, 불평등의 개념 및 다차원적 특성들을 검토한다.

셋째, 한국사회복지분야의 불평등 연구동향에 대해 시기, 주제 및 유형, 그리고 연구방법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넷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사회복지분야에서의 불평등 연구 쟁점을 고찰하고, 향후 불평등 연구의 지향점을 논의한다.

3)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2014년 기준 한국연구재단의 사회복지학 분야(중분류) 등재 및 등재후보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사회복지학 등재지는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한국가족복지학>, <노인복지연구>, <한국보육학회지>, <사회보장연구>, <사회복지연구>,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행정학>,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영유아보육학>, <장애와 고용>, <한국장애인복지학>,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청소년복지연구>, <학교사회복지> 등 총 17개이며, 등재후보지는 <청소년문화포럼>, <아시아아동복지연구>, <비판사회정책>, <한국군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교육>,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등 총 7개이다. 분석대상은 모두 24개 학술지이며, 기간은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18년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불평등 연구논문은 총 53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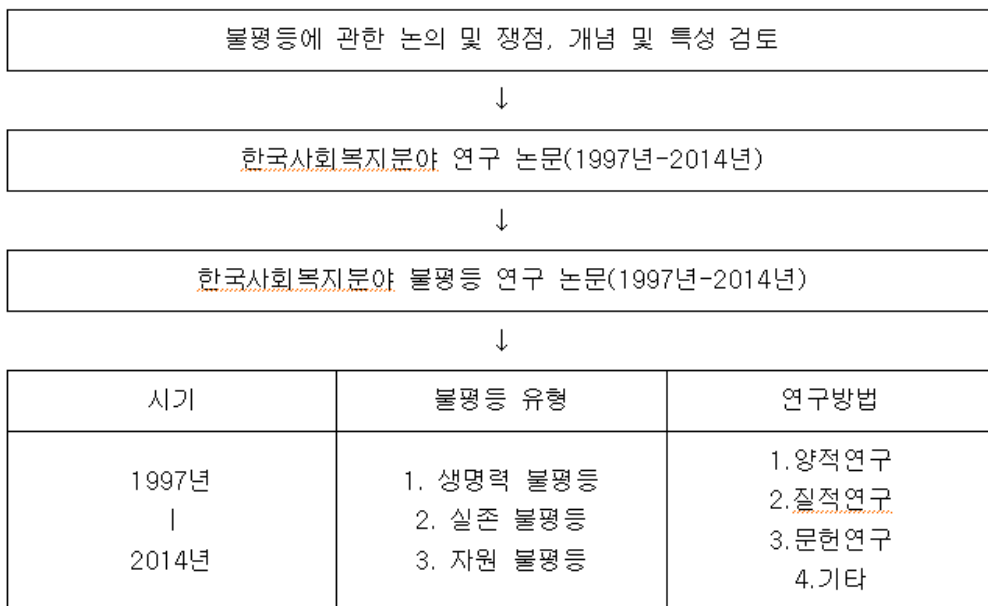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은 크게 3단계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조사대상인 24종의 학술지 목차를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1차적으로 불평등 관련 논문을 찾아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검색된 논문 가운데 본 연구의 주제에 부합하는 논문들을 선정하기 위해 논문의 초록뿐만 아니라 논문 전체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고, 검토하였다. 이후 불평등을 주요 주제로 연구하는 연구자 2명(예방의학 박

사 1명, 사회복지학 박사 1명)과 두 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불평등 논문으로 분류된 논문들은 시기, 주제(유형) 그리고 연구방법 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3) 연구 분석틀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한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그림 1).



[그림 1]. 분석 틀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분류에 따라 사회복지학으로 분류된 학술지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2014년 12월 기준). 사회복지를 전공한 연구자들이 사회복지분야 학술지에만 논문을 투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공 연구자들이 집필하였으나 본 연구에 포함되지 못한 불평등 관련 연구 논문들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불평등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부분적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불평등에 관한 논의 및 쟁점 고찰

본 절에서는 불평등에 관한 논의와 쟁점을 이념적 스펙트럼 하에서 주요 학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불평등을 중심으로 양극단에는 평등주의와 자유주의가 위치해 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혹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²⁾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불)평등에 대한 논의 및 쟁점을 살펴보는 이유는 롤스(Rawls)가 공리주의와의 대비를 통해 자신의 정의론을 고찰했듯이, 하나의 이론은 그것과 대립되는 입장에 관해 서술된 부분을 고찰함으로써 가장 잘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박호성, 1994, 23; Callinicos, 2000, 65). 따라서 평등주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순으로 주요 학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1) 평등주의

평등주의(egalitarianism)란 ‘모든 인간은 그 본질적 가치에 있어 동등하고, 사회에서 권리나 위세를 획득할 균등한 기회를 갖는다는 신념’을 의미한다(이철수, 2103). 즉, 평등주의는 말 그대로 “평등”을 최고의 가치 혹은

2) 자유주의적 평등주의(liberalistic egalitarianism)과 평등주의적 자유주의(egalitarian liberalism)은 서로 혼용되어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두 접근 모두 평등과 자유의 조화를 전제로 하지만 전자는 평등주의를 중심으로 자유를 강조하며, 후자는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평등을 강조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특정 학자를 자유주의자로 보느냐 평등주의자로 보느냐에 따라서도 용어가 달라지게 된다. 예컨대, 롤스를 자유주의자로 보는 경우, 그의 사상을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라고 칭하며, 반대의 경우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라고 부른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용어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며, 이에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이념으로 여긴다. 대부분의 평등주의자들은 모든 인간의 평등(equality)을 강조하면서 나아가 무엇에 관한 평등인가에 관해 다양한 견해를 피력해 왔으며, 성, 인종, 피부색, 신체적 특성 등과 관련된 자연적 차이와 시민권, 종교, 신분 등과 관련된 제도적 차이 등에 의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박상수, 2014, 114).

대표적인 평등주의 사상가로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와 칼 마르크스(Karl Marx)가 있다. 루소는 근대적 의미에서 불평등을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최초로 탐구하기 시작했으며, 나아가 마르크스의 사상에 중요한 원천을 제공한 학자이다(선우현, 2012, 80-83). 마르크스의 경우, 불평등 연구가가 아니었다고 평가되기도 하지만(Benson, 1978, 1), 분명히 마르크스 연구의 여러 측면들은 불평등 분석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Edward, 1997, 12). 예컨대,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이 불평등과 부자유이며, 그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 및 이데올로기적 장치들을 거느리고 있다고 비판한다(박성호, 1994, 339).

먼저, 루소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인간불평등 기원론, 1755>을 통해 근대적 차원에서 불평등을 하나의 사회문제로 격상시킨 선구적인 불평등 연구자라고 할 수 있다. 루소는 인간불평등의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하나는 자연적 불평등³⁾이며, 다른 하나는 도덕적/정치적 불평등이다(Rousseau, 1775, 45). 전자는 자연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나이, 건강, 체력 등의 차이와 정신이나 영혼의 자질 차이로 성립된다. 후자는 일종의 약속에 좌우되고 사람들의 동의로 정해지거나 적어도 용납되는 불평등을 의미한다.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는 불평등이 거의 없거나 미미했으며, 이러한 자연 상태의 불평등은 교육이나 생활양식 등에서의 차이와 같은 제

3) 이는 인간들이 재능과 힘에 있어서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각자 자연으로부터 자신을 인도하기에 충분한 이성을 부여받은 만큼, 누가 지적, 신체적, 정신적 우월성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이것이 그에게 타인을 자신의 권위에 복종시킨다든가, 또는 자신의 의지를 타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진병운, 2003, 29).

도적 불평등에 의해 점차 증대되었으며, 인간정신의 지속적 진보 속에서 불평등의 기원을 찾고자 했다(Rousseau, 1775, 90-92).

이에 루소는 불평등의 주요 기원으로서 사유재산으로 대표되는 각종 사회제도와 법률, 지배계급을 대변하는 근대국가의 형성, 그리고 인정이나 자존심 등과 같은 새로운 가치와 욕구의 등장 등에 주목하였다(Rousseau, 1775, 95-140). 루소는 이 가운데 특히 사유재산⁴⁾, 즉 부(部)를 다른 모든 불평등의 근원으로 보았다(Rousseau, 1775, 132-133). 그리고 불평등에 대한 루소의 이와 같은 성찰은 마르크스의 사상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⁵⁾. 즉, 불평등의 궁극적 원인으로 사유재산, 지배계급의 피 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서 국가론, 사회적 산물로서 인간 존재,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 혹은 예속 상태로서 불평등의 본질 등 루소의 사상적 고찰은 마르크스의 사상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선우현, 2012, 82-83). 따라서 불평등에 대한 마르크스의 입장은 루소의 그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적 개념은 계급과 사회라고 볼 수 있으며(박호성, 1994, 327), 이에 마르크스는 계급(구조)에 관한 분석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구조적 불평등을 비판하였다(Edward, 1997, 12-15). 즉,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인간관계는 서로 대등하고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지배와 예속 관계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는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비인간적 사회라는 것이 마르크스의 기본 시각이다(선우현, 2012, 91). 마르크스에 의하면 공리주의 이론이 만들어낸 ‘고립된 개인’이란 허구일 뿐이며, 그 사회에 의해 형성되지 않은 인간은 없다

4) 이러한 맥락에서 드워킨은 재산의 분배는 법적 질서의 산물이며, 한 시민의 재산은 그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법을 제정하느냐에 따라 상당부분 달라진다고 지적한다(Dworkin, 2000, 50).

5) 이탈리아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콜레티(L. Colletti)는 마르크스가 그의 철학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을 루소에게 의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암시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선우현, 2012, 81).

(Giddens, 1971, 68). 마르크스의 경우, 사회적 이동이 가능성은 인정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인간은 소유관계가 이미 결정되어진 사회 속에 태어남을 지적하였는데(Coser, 1997, 54-55), 이는 구조적 측면에서의 불평등을 의미하게 된다.

이처럼 마르크스의 분석은 생산수단과 관련된 사람들 간의 상대적 위치에 의해, 즉 희소한 자원과 권력에 대한 상이한 소유에 의해 사람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집중되어 왔다(Coser, 1997, 57). 불평등이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Mullard & Spicker, 1998: 126), 생산수단과 관련된 사람들 간의 상대적 위치나 관계 형성 문제는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자본주의에서 개인의 삶과 필요는 그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인 것과는 무관하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고립된 개인의 이기주의를 토대로 하는 정치경제학은 사유재산을 인간의 본질로 만든다(Giddens, 1971, 69-70). 이처럼 마르크스는 노동을 바탕으로 (특히, 자본주의)사회가 불평등하게 된 원인을 사람들이 재산을 사적인 방식으로 소유하기 시작한 데서 찾고 있는 것이다(이유선, 2009, 85).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는 불평등과 부자유를 그 본질로 하며, 동시에 그것들의 정당한 것으로 미화하고 위장하기 위한 여러 제도 및 이데올로기적 장치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마르크스(그리고 엥겔스)의 기본 생각인 것이다(박호성, 1994, 339).

무엇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 하의 평등 개념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평등, 즉 법률적 평등은 다분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이며, 자본주의 체제 내의 지배 계급에게만 해당되는 평등이라는 것이다(선우현, 2012, 92-93). 나아가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노동자의 표면적 자유와 평등은 자본가의 착취로 귀결되는 근원적인 예속과 불평등을 은폐하고 있다(Callinicos, 2000, 46).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

주의 사회에서 자유란 그것을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물질 토대가 마련되어 있을 때 실질적인 자유로서 의미를 갖는다(선우현, 2012, 94). 따라서 물질 토대의 차이에 따라 실질적 자유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며, 이는 (불)평등이라는 것이 (부)자유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시사한다. 예컨대, 자유의 박탈, 즉 부자유란 깨끗한 물이나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만 종종 조기사망으로 이어지는 병마와 싸우며 살아가는 경우를 말하며, 보건, 기능교육, 괜찮은 일자리, 혹은 경제적, 사회적 안전을 누릴 기본적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Sen, 1999, 57-58). 결국, 불평등의 감소 및 제거 노력은 평등의 추구보다는 부자유의 제거, 즉 자유의 증진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토니(Tawney, R. H.)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많이 박탈하는 사회야말로 불평등한 사회라고 주장한 바 있다(Fitzpatrick, 2001, 76). 루소 역시 평등 없이는 자유가 존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사르트르(Sartori, G)의 경우, 자유는 ‘몸통’이고 평등은 ‘다리’라고 표현한 바 있다(박호성, 1994, 46). 이처럼 자유와 평등은 상호배타적이고 갈등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긍정적 관점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학문적 차원에서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유주의적 평등주의가 개진되기 시작하였다.

(2)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란(liberal egalitarianism) 자유는 평등과 상호 제약적이며 동시에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동시에 평등은 사회구성원들의 실질적 자유를 확대할 수 있다(선우현, 2012, 100)는 신념체계를 의미한다. 예컨대,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는 원칙적으로 재산권과 시장정책을 지지하

며, 동시에 사회적 평등의 추구를 위해 국가 개입과 적극적 복지정책을 지지하고 정당화한다(김종철, 2013, 20; 박호성, 1994, 109). 이러한 평등과 자유의 조화를 위한 학문적 차원에서의 노력은 롤즈에서부터 출발해 드워킨을 거쳐 이론적으로 보다 완성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

롤즈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로 분류되지만, 그에게 자유란 평등과 상호제약적이고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평등 이념을 통해 자유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를 개진한 선도적 평등 철학자이다(선우현, 2012, 100). 하지만 롤즈가 현대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를 선도했다고 한다면, 드워킨은 이를 본격적으로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염수균, 2004, 100). 드워킨의 경우, 자유와 평등을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평등에는 이미 자유라는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김비환, 2002, 10).

먼저, 롤즈의 기본적 관심은 사회정의의 문제였다. 사회정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결핍의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롤즈는 이러한 복잡한 문제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의의 원리가 합의되는 절차에 주목하였다(이유선, 2009, 39). 이를 위해 롤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여 모두가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과 원리를 도출하고자 했으며, 이는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지능이나, 기술, 능력, 계급 및 사회적 지위, 성별, 인종, 연령 등에 대해 알지 못하는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속에서 가능하다(Rawls, 1972, 12)는 것이 그의 주된 주장이다⁶⁾. 즉, 무지의 베일에 가려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타고난 소질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합의할 원칙들이 우연적 불평등에 의해 왜곡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장동익, 2005, 1).

이처럼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에 있는 상태를 원초적 상황(original

6) 롤즈는 정의론이 요청되는 상황적, 역사적 조건을 묘사하면서, 사회가 비록 이기적인 인간들로 구성되기는 했으나 서로의 적절한 타협과 계약에 의해 평화적으로 바람직한 균형 상태를 이룰 수 있다는 낙관에서 출발하고 있다(박호성, 1994, 113).

position)이라고 하는데, 이 때 사람들은 무지의 베일에 가려져 자신이 부유층이 될지 빈곤층이 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합리적 결정을 선호하게 될 것이며, 결국 가장 나쁜 처지에 놓일 사람들의 복지가 극대화될 수 있는 최소극대화의 원리(maximin principle)를 지지하게 된다는 것이다(Fitzparick, 2001, 89).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롤즈는 정의의 두 가지 원칙을 제안한다(Rawls, 1972, 302).

· 제 1원칙: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체 체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 제 2원칙: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 그것이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고, ㉡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어야 한다.

제 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는 것으로 자유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며, 제 2원칙은 ‘차등의 원칙’으로 평등을 강조하며 특히 기회의 평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본다(Fitzpatrick, 2001, 89-90). 제 2원칙에서 ㉠은 (협회의) 차등원칙으로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전제 하에서만 차등 혹은 불평등을 허용하는 원칙이며, ㉡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으로 자신의 천부적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함을 주장한다(선우현, 2012, 110). 중요한 것은 정의의 제 1원칙이 가능하려면 사회경제적 평등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야하며, 이는 자유와 평등은 상호갈등적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Callinicos, 2000, 76). 또한 제 2원칙의 기본 가정은 평등에 있으며,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의 이익에 의한 정당화를 필

요로 하게 된다(Callinicos, 2000, 72). 따라서 롤즈의 두 가지 원칙에서 제 1원칙은 제 2원칙에 우선하며, 제 2원칙 가운데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에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롤즈가 제안한 두 가지 정의의 원리는 한 사회가 정의롭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제도나 법률이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이유선, 2009, 49).

한편, 드워킨의 경우, 롤즈의 정의론을 비판적으로 수용·계승하면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정의론을 발전시켰다(박상혁, 2011, 126)⁷⁾. 드워킨은 평등한 배려(equal concern)를 정치 공동체의 최고 덕목으로 보며(Dworkin, 2000, 49), 개인의 평등한 자유뿐만 아니라 개인이 평등하게 대우를 받을 지위를 보장받는 것이 개인의 온전한 자유 실현의 전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본다(김종철, 2013, 22).

드워킨 정의론의 핵심은 ‘자원의 평등(equality of resources)’과 ‘복지의 평등(equality of welfare)’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분배적 평등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⁸⁾. 먼저, 드워킨은 자원의 평등을 개인들이 사적으로 소유하는 모든 자원에 대한 평등이라고 가정한다(Dworkin, 2000, 136). 즉, 자원의 평등은 분배적 평등(distributional equality)에 대한 하나의 견해로 제시된 것인데, 분배적 평등은 넓은 의미에서 자유와 권리를 포함해 분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기초적 선을 분배하는 것의 평등을 의미하는 반면, 좁은 의미에서는 재산의 분배에서의 평등을 의미하는데 드워킨은 자유나 권리 같은 것을 제외하고 재산과 같은 자원을 분배하는 것의 평등을 정치적 평등과 구분하여 분배적 평등이라고 표현하였다

7) 드워킨의 롤즈 비판의 핵심은 롤즈의 정의론이 ‘운평등주의’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차등의 원칙이 장애로부터 생기는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완화하지 못하고, 개인이 경제적 처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하는 등의 선택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상과 책임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박상혁, 2011, 125).

8) 드워킨은 그의 저서 <자유주의적 평등(Sovereign Virtue, 2000)>에서 복지의 평등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비판을 바탕으로 자원의 평등을 주창한다.

(염수균, 2004, 103).

드워킨은 자원의 평등 원리와 관련하여 두 가지 구분을 사용하는데(김정훈, 2013, 426), 이는 사람들의 운명은 그들의 선택과 여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Dworkin, 2000, 500). 먼저, 선택/운의 측면에서 드워킨은 운(luck)을 ‘선택적 운(option luck)’과 ‘눈먼 운(brute luck)’으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숙고적이고 계산된 모험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이 예측했고 그 결과 피했을 수도 있는 하나의 위험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익이나 손실을 보는지에 관한 문제이고, 후자는 그런 의미에서 숙고적인 모험이 아닌 다른 위험들이 어떤 결과를 갖는지의 문제다(Dworkin, 2000, 147-148). 예컨대, 마른하늘의 날벼락이 눈먼 운이라면, 전 재산을 도박에 쏟아 부어 탕진하는 경우가 선택적 운이다. 눈먼 운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선택적 운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과 열망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만 자신의 육체적·정신적 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Callinicos, 2000, 84).

다음으로 여건/선택의 측면에서 드워킨은 사람들의 운명이 선택과 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선택은 인성(personality)을 반영하며, 인성은 믿음, 신념, 판단, 기호, 선호, 소망(포부) 등으로 구성된다(김정훈, 2013, 426). 즉, 자원의 평등은 신념, 소망, 기호, 선호 등과 같은 것으로 이해되는 인성과 그가 쓸 수 있는 자원, 재능, 능력 등을 포함하는 그 사람의 여건 사이의 근본적인 구분을 가정하게 된다(Dworkin, 2000, 239). 여건의 경우, 개인적 자원과 비개인적 자원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육체적·정신적 능력 등 그의 일반적인 체력과 재능을 의미하며, 후자는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재분배될 수 있는 일상적 의미의 자원을 의미한다(Dworkin, 2000, 500). 드워킨이 말하는 자원은 개인적 자원과 비

개인적 자원을 더한 벡터 개념이 된다(Dworkin, 2000, 287-288; 김정훈, 2013, 427 재인용).

따라서 드워킨은 사람에 속하는 요인의 차이는 불평등을 허용 가능하지만, 여건에 속하는 요인의 차이는 불평등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본다(김정훈, 2013, 427). 이는 드워킨의 가설적 보험 분배방법 개념의 맥락에서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다. 즉 드워킨은 분배는 ‘의욕에 민감하고 타고난 장애에 둔감하게’(ambition-sensitive and endowment-insensitive) 이뤄져야 하며, 이는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많은 분배를 받아야 하지만, 타고난 장애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적은 분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동일, 2014, 260). 이것이 드워킨의 자원의 평등의 핵심원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원의 평등은 전체적인 복지보다는 그 사람의 ‘여건’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게 된다(Dworkin, 2000, 240).

한편, 드워킨이 말하는 복지의 평등⁹⁾은 분배체계는 더 이상의 이전이 사람들을 복지 면에서 더 평등하도록 만들지 못할 때까지 자원을 분배하거나 이전할 때 사람들을 평등한 사람들로 대우하는 것이다(Dworkin, 2000, 62). 즉 복지의 평등은 정부/국가가 사람들을 평등한 사람으로 대우하기 위해서는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복지가 가능한 동일하도록 자원을 분배하는 것을 강조한다(염수균, 2004, 104). 반면, 자원의 평등은 분배체계는 더 이상의 이전이 전체 자원에 대한 사람들의 몫을 더 평등하게 만들지 못할 때까지 분배하거나 이전할 때 사람들을 평등한 사람들로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Dworkin, 2000, 63). 이 두 가지 평등개념에 대한 이해를 위해 드워킨은 재산이 많은 한 사람에게 다양한 특성과 여건, 기호 등

9) 1981년 드워킨은 비싼 기호의 문제 때문에 복지의 평등 원리를 폐기하고 자원의 평등 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김정훈, 2013, 438). 비록 복지의 평등은 드워킨 자신에 의해 철회된 개념이지만 드워킨의 평등론에 대한 전체적 이해를 위해 본 글에서는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을 가진 자식들이 있을 경우¹⁰⁾, 그는 재산과 관련하여 유언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다. 만약 그 재산가가 복지의 평등을 추구한다면, 그는 자식들의 차이점들을 고려해서 그들에게 동일한 몫을 주지는 않을 것이며, 반면 자원의 평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의 자식들이 이미 재산을 평등하게 갖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그의 목표는 재산을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드워킨은 복지의 평등에서 복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언인지 구체적이지 않을 때에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복지의 평등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한다(Dworkin, 2000, 66). 이는 기호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예컨대, 양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소주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좀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데, 이로 인해 양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은 자원을 갖는 것은 공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의 평등론에 따르면, 장애인과 같은 취약집단은 그들의 복지를 위해 더 많은 자원을 가져야 하지만, 동일한 취약집단이라고 하더라도 비싼 기호를 갖는 사람들은 더 많은 복지를 갖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드워킨은 복지의 평등론을 비판·철회하면서 자원의 평등론으로 나아가게 된다.

(3) 자유(지상)주의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란 말 그대로 자유¹¹⁾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상 체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사상의 대표적인 학자로

10) 드워킨은 자식들 중 한 명은 맹인이고 다른 자식은 비싼 취미를 가진 플레이보이이며, 셋째 자식은 비용이 많이 드는 정치가를 꿈꾸며, 넷째 자식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인이며, 또 다른 자식은 비싼 재료를 필요로 하는 조각가라고 가정하고 있다(Dworkin, 2000, 63).

11) 피츠패트릭(Fitzpatrick, T.)은 자유를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리하였다(2001, 117). ① 자유는 배타적 시민권의 한 속성이다(아리스토텔레스식의 자유 개념). ② 자유는 도덕체계의 초월이다(니체의 자유 개념). ③ 자유는 자유시장 자본주의에서 작동되는 이기심이다(스펜서의 자유개념).

로버트 노직(Nozick, R.)¹²⁾을 들 수 있다. 롤즈가 자유주의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재분배 문제에 관심을 보인 반면, 노직은 철저히 개인의 자유에만 주목한 철저한 자유지상주의자이다(이유선, 2009, 58). 노직과 같은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자유는 ‘사실에 관한 명제’이기 때문에 자유의 제한은 곧 바로 자유의 손실이나 억압으로 이어지지만, 평등은 경험과 분리된 ‘추상적’ 이념이므로 ‘법 앞의 평등’과 같은 형식적 평등만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선우현, 2012, 61). 자유지상주의에서는 자유와 소유를 동일시하며, 자유를 포함한 모든 권리들은 소유의 형태들이고, 소유는 그 자체가 자유의 한 형태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자유지상주의 하에서 사유재산에 기초한 시장질서는 자유를 구체화한 것이 된다(노병철 외, 2000, 65).

자유지상주의자인 노직의 최대 관심은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분석에 집중되어 있으며, ‘소유권리론(entitlement theory)’은 그러한 작업을 위한 기본 개념틀이라고 할 수 있다(박호성, 1994, 134). 이러한 노직의 소유권리론에는 크게 세 가지 원칙이 있다(Nozick, 1974, 192-196; 장동익, 2006, 116-124). 먼저, ‘취득(acquisition)에서의 정의의 원칙’이다. 이는 소유되지 않은 것들이 최초로 취득되는 방식, 즉 비점유물의 사유화 문제와 관련된다.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칙에 따라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그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다. 두 번째는 ‘이전(transfer)에서의 정의의 원칙’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한 사람의 소유물이 다른 사람에게 이동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이 원칙에 따라 특정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그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그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의와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칙에 따라 소유물과 그 권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에 노직은 세 번째, ‘교정(rectification)에 있어서 정의의 원칙’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12) 노직은 그의 저서 ‘The Examined Life(1989)’에서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자유지상주의자가 아니며 이는 젊은 날 자신이 관심을 가졌던 다양한 주제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 원칙은 도둑질, 사취, 노예화, 수탈 등의 부정의한 방법으로 취득한 소유물에 대한 처리 문제와 관련된다. 즉, 노직은 과거의 불의를 통해 현재의 소유상태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현재의 소유는 부정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노직의 소유권리론에 의하면, 사람들 간의 소유물에 대한 취득과 이전 과정이 정의롭게 이루어짐으로써 그 누구도 권리를 침해받지 않았다면, 설령 그 결과가 불평등하다고 해도 이는 정의로운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소유권리론을 통해 노직이 주장하고자 했던 핵심은 바로 국가와 그 역할에 관한 것이다(박호성, 1994, 135). 즉, 노직의 주된 고민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개인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었다(이유선, 2009, 57). 이에 노직은 그의 정의론인 소유권리론을 바탕으로 “국가에 관한 주된 우리의 결론들은 첫째, 강압, 절도, 사기로부터의 보호, 계약의 집행 등의 좁은 기능들에 국한된 최소국가(minimal state)는 정당화되며, 둘째, 그 이상으로 확장된 국가는 특정한 것을 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말한다(Nozick, 1974, 11).

노직의 최소국가는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야경국가와 거의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와 관련하여 노직은 첫째, 모든 국가가 부도덕하다는 무정부주의자들에 대항하여 최소국가는 정당화될 수 있으며, 둘째, 포괄적 기능을 가진 국가를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항하여 최소국가가 정당화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국가이자 유일하게 정당화될 수 있는 국가라고 주장한다(장동익, 2006, 8). 그리고 노직의 최소국가는 자연 상태(1단계)에서 출발하여 보호협회(2단계)와 극소국가(3단계)를 거쳐 최소국가(4단계)에 이르는 총 4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치게 된다(Nozick, 1974, 10-87; 장동익, 2006, 45; 장동진, 김만권, 2000, 200).

먼저, 권리를 가진 개인들이 자연 상태(state of nature)에서 살고 있게 된다(1단계). 하지만 이러한 자연상태 하에서 개인들 간 분쟁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협회(protective association)를 결성한다(2단계). 다음으로 이러한 보호협회는 극소국가를 형성하게 된다(3단계). 이때 보호협회는 보호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대행업소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이런 보호 대행업소들은 지역적으로 나뉘지게 되고 각 지역에서 지배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이와 같은 지배적인 보호 대행 업소들은 극소국가를 형성하게 되고, 극소국가에서는 이에 참여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개인만을 보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극소국가는 아직 극소국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지역 내 독립인들(independents)에게 보상 등을 제공하여 흡수함으로써 최소국가를 형성하게 된다.

결국, 노직이 주장하는 정의론의 핵심은 소유권리론을 바탕으로 하는 최소국가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들은 모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주요 장치였던 것이다.

2) 불평등 유형 및 특성

불평등(inequality)을 하나의 개념 혹은 현상으로써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대한 불평등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Sen, 1992, 7-8). 이 ‘무엇’이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그리고 학문마다 다소 상이하게 접근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부(rich)와 권력(power)이 불평등의 핵심 요인으로 다뤄지고 있다(Edward, 1994: 4-8; 박호성, 1994: 127). 이러한 맥락에서 불평등은 권위나 재화가 전유되거나 박탈당하는 상태로 정의되기도 한다(Sen, 1981; Townsend, 1970; 박경숙, 2008: 97 채인용).

하지만 불평등은 차이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이익 속에 존재하는 것(Mullard & Spicker, 1998: 126)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차이는 선천적으로 주어지거나 선택되는 것인 반면,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Therborn, 2013, 56)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또한 차이는 다양성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즉, 오늘날 사람들 간의 차이는 다양성의 측면에서 일정부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모든 차이를 불평등으로 보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불평등은 권력과 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평등전략은 특정 사회적 불이익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불평등의 감소 혹은 완화가 가능해 질 것이다.

한편, 불평등은 다차원적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불평등은 주로 ‘소득’의 불평등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소득불평등은 여러 다른 공간에서의 불평등, 즉 복지, 자유, 그리고 건강과 수명 등을 포함하는 삶의 질의 다양한 측면의 불평등과는 실질적으로 구별되는 것(Sen, 1999, 158)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외에서는 불평등의 다차원성에 주목한 연구들이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Araar, 2009; Atkinson & Bourguignon, 1982; Justino, 2005; Kelly, 2006; Kolm, 1977; List, 1999; Maasoumi, 1986; Tsui, 1995) 국내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백승주, 금현섭, 2013; 이소정 외, 2008; 정해식 외, 2014).

문제는 이와 같은 다양한 불평등은 완전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제도를 통해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신광영, 2013, 23). 이처럼 불평등은 또한 누적적인(cumulative) 특징을 갖는다. 즉, 아동기의 불평등은 생애주기를

통해 누적되어 나타난다(김진현, 한지나, 2014, 213; DiPrete & Eirich, 2006, 271). 이 때, 아동기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족 배경은 세대 간 불평등의 재생산 현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어왔다(Smith & Graham, 1995; 방하남, 2004, 20-21). 이처럼 불평등의 다차원적 특성은 아동기의 불평등이 노년기까지 이어지는 누적적 특성을 야기하며, 이는 불평등의 주요 특성으로서 불평등의 구조를 이루게 된다.

불평등의 이와 같은 구조적 특성, 즉 불평등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불평등은 단순히 학문적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스웨덴 출신 사회학자 테르보른(Therborn, 2013)의 불평등에 대한 분석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인간 존엄성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마사 누스바움(Nussbaum, 2011, 32)의 물음을 통해 서로 뒤얹히며 영향을 주고 받는 생명력 불평등(vital inequality), 실존적 불평등(existential inequality), 자원불평등(resource inequality)의 세 가지 유형을 추론해 낸다(Therborn, 2013, 68-75).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불평등의 네 가지 메커니즘을 분석함으로써 불평등 극복하고 해소하기 위한 평등 메커니즘을 제안한다(Therborn, 2013, 75-87).

(1) 생명력 불평등¹³⁾

생명력 불평등이란 사회적 구조에 속한 인간 유기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을 의미한다. 이는 사망률, 기대수명, 건강수명(심각한 질병 없이 살 수 있는 기간)과 출생 시 몸무게와 특정 시기의 신체

13) Therborn(2013). pp. 69

성장과 같은 아동 건강에 관한 다양한 지표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생명력 불평등은 실업, 교육 및 소득수준, 인종 및 성차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Therborn, 2013, 21-32). 이러한 맥락에서 생명력 불평등은 교육수준, 직업계층, 소득수준, 재단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치(socioeconomic position)에 따른 건강상의 차이를 의미하는 건강불평등(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07, 19)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Danials가 건강을 공정한 ‘정상적 기회 범위(normal opportunity)’를 가능케 하는 기초(김동진 외, 2013, 12)라고 말한 것은 테르보른의 생명력 개념이 건강과 유사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⁴⁾

이러한 생명력 불평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인간 삶에 있어서 건강이 갖는 중요성 때문이다. 예컨대, Sen(2002)의 관점에서 건강은 가치 있는 삶을 구성하는 기능(functioning)인 동시에 다른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로서의 역량(capability)을 의미한다(이한나, 2012, 18). 따라서 사회정의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건강과 질병은 가장 주된 요인으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Sen, 2002, 659). 이러한 맥락에서 생명력 불평등은 자유를 제한하는 부정의(injustice)한 것이 된다.

나아가 생명을 위협하는 불평등의 위력은 가난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다(Therborn, 2013, 25; Marmot, 2004, 62). 예컨대, 미국의 흑인들은 중국이나 인도의 저소득 지역 사람들보다 1인당 소득이 높지만, 오히려 성년까지 생존할 확률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en, 1999, 65).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요인보다 불평등 수준이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Wilkinson & Pickett, 2010, 109-114).

14) 이러한 이유로 본 글에서는 생명력과 건강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2) 실존적 불평등¹⁵⁾

실존적 불평등은 자율성, 존엄성, 자유의 정도, 존중받을 권리, 자아를 개발할 권리 등 인격과 관련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배당의 불평등을 의미한다. 실존적 불평등은 1923년 영국의 관습법이 캐나다 여성들의 인격에 대해 임신과 관련된 법률적 해석을 내리면서 논란이 되었는데, 당시 영국법은 여성을 “고통과 형벌의 측면에서 인간일 뿐, 권리와 특권의 측면에서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정의했다.

실존적 불평등의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가부장제와 남녀차별에 억눌려 활동에 제약을 받는 여성, 정복자에게 지배받는 식민지 국민, 상위 계층에 대한 하위계층, 지배민족에 대한 선주민이나 이민자나 소수민족, 극빈자를 위한 수용소나 의료시설을 지어놓고 생색내기 바쁜 권력자들에게 급실거려야 하는 극빈자 혹은 장애인, 너그럽지 못한 양성애자 때문에 커밍아웃을 하지 못하는 동성애자, 상위 카스트에 의해 천대받는 천민 카스트, 위계사회의 낮은 계층에서 유린당하는 사람 등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도 없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인격적 자율성, 인정, 존중의 불평등을 낳고, 남 못지않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격의 실존적 불평등을 부정하게 만든다.

테르보른은 실존적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규범, 조정과 담론, 사회적 상호작용의 유형, 권력자의 언행, 의사와 같은 전문 지식인의 관행 등을 조사하는 한편, 인터뷰와 일반 사회조사 등을 통해 제약과 굴욕에 관한 개인적 경험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5) Therborn(2013). pp. 69-71

(3) 자원 불평등¹⁶⁾

자원불평등은 행위자로서의 인간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공평하게 제공받지 못하는 불평등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자원불평등에 관한 논의는 첫 월급이 들어오면서 시작되며, 처음부터 갖고 태어나는 자원 불평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간 활동에 필요한 자원은 매우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초의 자원은 부모의 재산과 지식, 그리고 그들의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자원불평등에는 소득, 교육, 재산, 권력, 그리고 사회적 관계나 접촉 등 다양한 개념의 자원들이 포함되지만 이 가운데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는 교육을 단순히 기회의 측면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회자본 혹은 문화자본으로서 교육의 증대된 영향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소득은 여전히 자원불평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사회적 연구 혹은 자본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관계의 측면 역시 오늘날 자원불평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진다. 또한 권력은 인간 활동에 미치는 힘이 대단한, 돈과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불평등 연구에 있어서 권력은 다양한 종류의 통치 제도, 즉 권력의 구도와 관련해서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신광영(2013, 19)의 경우, 자원불평등을 개인이나 가족이 이미 가지고 있는 축적된 처분 가능한 자원의 불평등과 특정한 기술이나 업무 능력과 같이 잠재적으로 자원을 획득할 수 있지만, 현재화되지 않았고, 처분 가능하지도 않은 자원으로 구분하였다. 처분 가능한 자원은 주택이나 금융자산을 포함한 재산(asset)을 포함하며, 대체로 처분하지 않은 자원이나 처분 가능하지 않은 자원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얻은 소위 '인적 자본'(human capital)'이라 불리는 사람에 체화된 자원이 된다.

16) Therborn(2013). pp. 70-72

3. 한국사회복지분야 불평등 연구 동향 분석

1) 시기 별 불평등 연구 동향

한국사회복지분야에서 불평등 연구가 출현한 빈도를 시기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그림 2). 1997년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인 2014년까지 18년 동안 한국사회복지분야의 불평등 연구 논문은 총 53편으로 나타났다. IMF 시기인 1997년에는 1편의 불평등 연구가 이루어졌고, 1998년 2편, 2000년 1편, 그리고 1999년과 2001년에는 불평등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각 해마다 2편씩의 불평등 연구가 수행되었고, 2006년에는 한 편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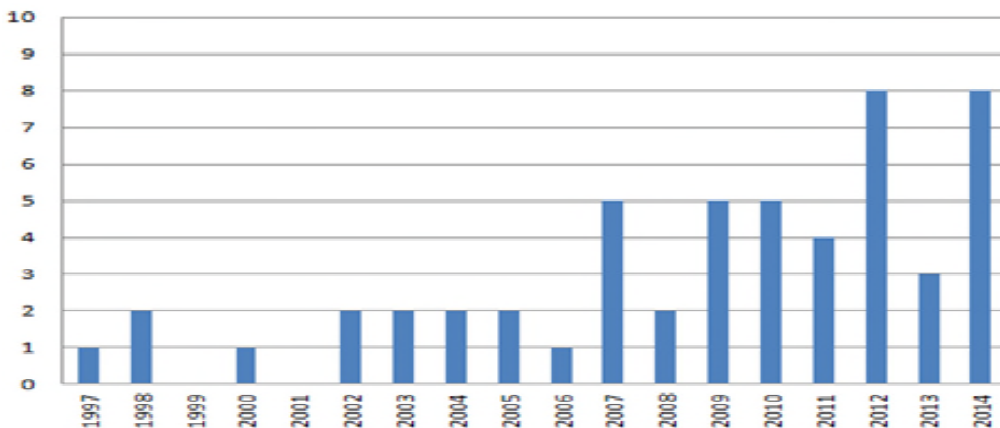
한편, 2007년은 한국사회복지분야에서 불평등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로 보인다. 2007년에 5편의 불평등 연구가 이루어졌고, 2008년 2편, 2009년과 2010년 각 5편, 2011년 4편의 연구가 각각 수행되었으며, 2012년에는 8편, 2013년 3편, 2014년 8편의 불평등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사회복지분야에서의 불평등 연구의 총량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2014년까지 불평등 연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경향은 사회복지학이 갖는 학문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즉, 사회복지학은 특정 사회문제나 현상에 대한 예측보다는 이미 나타난 현상이나 사회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사회복지학은 기본적으로 소비적인 필요를 개별적, 직접적, 비시장적, 공식적 혹은 비영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일방적 이전(unilateral transfer)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김태성, 홍선미, 2006, 20-27). 따라서 사회문제의 예측 보다는 이미 심각해진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이 사회복지학의 주요 역할과 기능이라고 했을 때, 1997년 이환이기 이후 점

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평등 연구의 경향을 통해 한국사회의 현실적인 불평등 역시 점차적으로 증가해왔다고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불평등이 급격하게 심화되었다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¹⁷⁾. 학문적 차원에서의 연구가 현실의 측면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기란 어려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복지분야에서 불평등 연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그만큼 현실의 불평등 역시 심각한 문제로서 점차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 시기 별 불평등 연구논문 수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빈도	1	2	0	1	0	2	2	2	2	1	5	2	5	5	5	8	3	8	53
비율	1.9	3.8	0	1.9	0	3.8	3.8	3.8	3.8	1.9	7.5	3.8	9.4	9.4	9.4	15.1	5.7	15.1	100



[그림 2]. 시기 별 불평등 연구 논문 수

17) 일례로 전체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자들의 몫을 의미하는 노동분배율의 경우, 1990년대 약 90%였던 것이 2005년에는 83%로 나타나 지난 9년 간 약 7%가 감소했으며, 2007년 이후 다시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신광영, 2013, 86).

2) 유형 별 불평등 연구 동향

테르보른(Therborn, 2013)이 제시한 세 가지 불평등 유형을 기준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먼저, 생명력 불평등이란 사회적 구조에 속한 인간 유기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명력 불평등연구에는 건강과 의료(이용) 및 정보¹⁸⁾에 관한 불평등 연구가 포함된다. 둘째, 실존적 불평등이란 자율성, 존엄성, 자유의 정도, 존중받을 권리, 자아를 개발할 권리 등 인격과 관련하여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배당의 불평등을 의미한다. 이에 실존적 불평등연구는 여성, 장애인, 소수민족이나 이민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존엄성과 자율성, 권리 등에 관한 불평등을 다루는 직접적 실존 불평등 연구와 그들을 하나의 연구 분석대상 및 단위로 삼은 간접적 실존 불평등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자원 불평등은 행위자로서의 인간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공평하게 제공받지 못하는 불평등이다. 따라서 자원불평등 연구에는 소득/소비, 교육 및 주거 등에 관한 불평등연구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먼저, 생명력 불평등 연구로 분류된 논문은 전체 53편 가운데 14편으로 26.42%의 비중을 나타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불평등 연구가 14편 가운데 10편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71.43%), 의료불평등 연구 3편, 정보불평등 연구 1편으로 각각 분류되었다.

다음으로 직접적인 실존적 불평등으로 분류된 논문은 총 2편이 분류되었다. 최원규(2002)는 정신지체장애인 혹은 부랑인 시설 수용자들에게 시행되는 강제 불임수술을 푸코의 (생명)권력 개념에 입각하여 사회적 타자에게 강제불임과 같은 자의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행해진 권력의 실체

18) 테르보른은 생명력 불평등의 핵심원인으로 정보의 부정적 비대칭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취약계층들은 어떤 음식과 어떤 의학적 치료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지, 어떤 식습관과 라이프스타일이 건강에 좋은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pp.170).

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권승(2003)의 경우, 기혼여성의 고용 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전업주부)에 따라 가사업무 수행주체, 가정 내 다양한 사안에 관한 의사결정권 행사주체, 및 자금관리와 운용권 보유주체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고찰함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가정 내 성평등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자원불평등으로 분류된 논문은 전체 53편 가운데 31편으로 58.49%로 전체 불평등 연구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전체 자원불평등 연구 31편 가운데 소득불평등 연구가 28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0.32 %). 다음으로 소비불평등 연구 2편과 교육불평등 연구 1편이 각각 이루어졌다.

<표 2> 유형 별 불평등 연구 동향

구분	생명력 불평등				실존 불평등	자원불평등					기타	계
	건강	의료	정보	소계		소득	교육	소비	주거	소계		
1997	0	0	0	0	0	0	0	0	0	0	1	1
1998	0	0	0	0	0	1	0	0	0	1	1	2
1999	0	0	0	0	0	0	0	0	0	0	0	0
2000	0	0	0	0	0	1	0	0	0	1	0	1
2001	0	0	0	0	0	0	0	0	0	0	0	0
2002	0	0	0	0	1	1	0	0	0	1	0	2
2003	0	0	0	0	1	0	0	0	0	0	1	2
2004	0	0	1	1	0	1	0	0	0	1	0	2
2005	0	2	0	2	0	0	0	0	0	0	0	2
2006	0	0	0	0	0	0	0	1	0	1	0	1
2007	0	0	0	0	0	5	0	0	0	5	0	5
2008	0	0	0	0	0	2	0	0	0	2	0	2
2009	0	0	0	0	0	4	0	1	0	5	0	5
2010	1	0	0	1	0	4	0	0	0	4	0	5
2011	1	0	0	1	0	2	0	0	0	2	1	4
2012	3	1	0	4	0	4	0	0	0	4	0	8
2013	1	0	0	1	0	1	1	0	0	2	0	3
2014	4	0	0	4	0	2	0	0	0	2	2	8
계	10	3	1	14	2	28	1	2		31	6	53

한편, 실존적 불평등 개념을 일반적인 연구대상으로 개념화할 경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실존적 불평등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대상은 노인으로 총 15회 다루어졌다. 이는 점차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구조가 매우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일반 사회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총 11회 이루어졌으며,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불평등 연구는 총 10회 다루어졌다. 전자는 사회전체적인 불평등 추이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큰 틀에서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접근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정책의 근거로 활용되기에 매우 유용하다. 후자의 경우, 지역과 국가 간 불평등을 비교한 연구들이다. ‘비교’란 일반적으로 개체 간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파악하는 분류작업을 지칭하는데(Scarow, 1969), 특히 사회과학연구에서 비교분석은 사회적 현상의 생성경로에 대한 인과적 가설이 과연 서로 다른 상황 하에서 가능한지를 판별하려는 목적을 갖는다(김웅진, 김지희, 2000, 16). 이외에 사회복지분야에서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여겨지는 여성은 7회, 장애인 6회, 아동 및 저소득 각각 4회 다루어졌다.

<표 3> 연구대상으로 개념화된 실존적 불평등 연구 분류(중복)

구분	노 인	장 에 인	여 성	아 동	저 소 득	일반	비 정 규	국가· 지역	기 타	계
1997	0	0	0	1	0	0	0	0	0	1
1998	0	0	0	0	0	0	0	1	1	2
1999	0	0	0	0	0	0	0	0	0	0
2000	0	0	0	0	0	1	0	0	0	1
2001	0	0	0	0	0	0	0	0	0	0
2002	0	1	0	0	0	1	0	0	0	2
2003	0	0	1	0	0	0	0	0	1	2
2004	0	1	0	0	1	1	0	1	0	4
2005	0	0	0	0	0	0	0	2	0	2
2006	1	0	0	0	0	0	0	0	0	1
2007	1	0	0	0	1	4	0	0	0	6
2008	2	0	0	0	0	0	0	0	0	2
2009	2	0	2	1	0	0	0	0	0	5
2010	2	0	1	0	0	2	0	2	0	7
2011	2	0	2	1	0	1	1	1	0	8
2012	3	0	0	0	1	1	0	2	1	8
2013	0	1	0	0	0	0	1	1	0	3
2014	2	3	1	1	1	0	0	0	0	8
계	15	6	7	4	4	11	2	10	3	62

3)연구방법 별 불평등 연구 동향

한국사회복지분야 불평등 연구의 연구방법 별 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강철희·김미옥(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론 분류를 토대로 크게 경험적 연구와 비경험적 연구로 구분하였다. 경험적 연구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그리고 혼합방법론 연구로 구분하였으며, 비경험적 연구의 경우 문헌 연구나 개념화 연구 등을 포함한다. 경험적 연구의 경우,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총 53편의 불평등 연구 가운데 48편이 양적연구로 분류됨으로써 약 90%의 불평등 연구

가 양적방법을 통해 이루어진 걸 알 수 있다. 질적 연구의 경우, 2012년에 1편 이루어졌고, 2011년에는 혼합방법론 연구가 1편 이루어졌다. 반면, 불평등 연구에서 비경험적 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총 3편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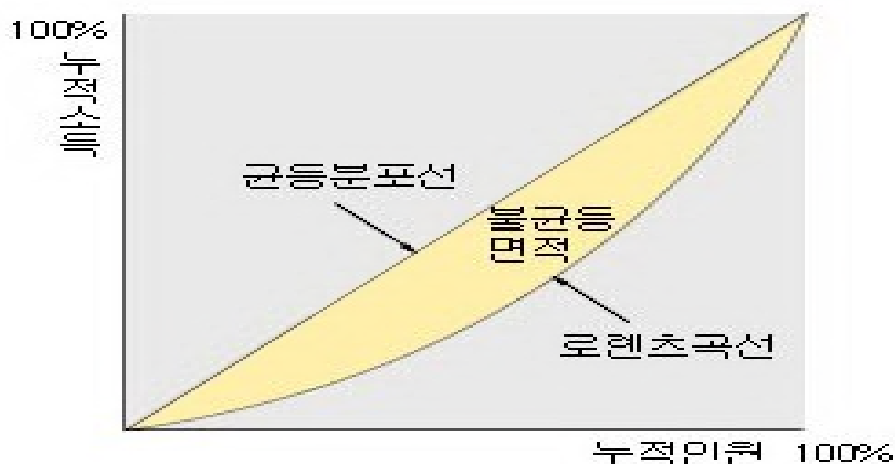
<표 4> 연구방법 별 불평등 연구 동향

구분	경험적 연구				비경험적 연구	합계
	양적	질적	혼합	소계		
1997	1	0	0	1	0	1
1998	2	0	0	2	0	2
1999	0	0	0	0	0	0
2000	1	0	0	1	0	1
2001	0	0	0	0	0	0
2002	1	0	0	1	1	2
2003	1	0	0	1	1	2
2004	2	0	0	2	0	2
2005	2	0	0	2	0	2
2006	1	0	0	1	0	1
2007	5	0	0	5	0	5
2008	2	0	0	2	0	2
2009	5	0	0	5	0	5
2010	5	0	0	5	0	5
2011	3	0	1	4	0	4
2012	7	1	0	8	0	8
2013	3	0	0	2	0	3
2014	7	0	0	7	1	8
합계	48	1	1	50	3	53

한편, 다수의 불평등 연구가 경험적 연구, 그 중에서도 양적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 가운데 지수(index)를 활용한 방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

먼저, 불평등 연구에서 양적방법을 활용할 때 지니계수를 사용한 경우가 총 26회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수이다.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

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로렌츠 곡선은 사람들을 소득의 크기 대로 순서를 매긴 뒤,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로축에서 인구를 누적해가고, 세로축에서는 그들의 소득을 누적해감으로써 그려진 하나의 곡선이다(이정우, 2010, 68). [그림 3]에서 보듯이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는 평등하고 멀리 떨어질수록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서 초승달 모양의 ‘불균등 면적’을 45°선 이하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눈 값이 바로 지니계수가 된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3 이하의 사회는 소득 불평등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0.5 이상인 사회는 소득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사회로 여겨진다(Stiglitz, 2013, 108).



[그림 3]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

둘째, 불평등 연구에서 분위배율 및 점유율을 활용한 연구는 총 12회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예컨대, 소득 5분위 소득점유율이란 전체 소득대상을 소득에 따라 5분위로 나누고, 각 분위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소득 5분위 배율의 경우, 최상위인 5분위 소득점유율을 최하위인 1분위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이다(채구목, 2007, 203-204). 경우에 따라서 10분위 점유율 및 배율도 사용된다.

셋째, 대수편차평균(mean log deviation: MLD)을 지표로 활용한 연구는 총 6회로 나타났다. 대수편차평균은 엔트로피 지수 가운데 하나로 시간에 따른 불평등의 변화, 즉 동태적 분석을 위해 이용된다(정의철, 김진욱, 2007, 61). 앞서 언급한 지니계수의 경우, 전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위 인구집단 별 분배상태 및 불평등 수준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대수편차평균 방법이 고안되었다(반정호, 2011, 90-91). 즉, 대수편차평균을 사용하면 집단 별 소득불평등, 즉 집단 내, 그리고 집단 간 소득불평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수편차평균은 자연대수로 전환된 소득의 편차를 구해 이것을 평균한 값의 형태를 띠며(김혜연, 홍백의, 2009, 399), 수식은 다음과 같다¹⁹⁾.

$$GE(0) = \frac{1}{n} \sum_{i=1}^n \ln\left(\frac{\mu}{y_i}\right) = \ln\mu - \frac{1}{n} \sum_{i=1}^n \ln y_i = MLD$$

한편, 집중지수(concentration index: CI)는 네 번째로 많이 활용된 지수로서 총 4회 사용되었다. 집중지수는 기본적으로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의 산출방법을 건강 또는 의료이용 관련 지표에 적용시킨 것이다(김진구, 2011b, 160). 집중지수는 로렌츠 곡선처럼 그래프의 x 축에는 집단 내에서 소득수준으로 차지하는 백분위를, y 축에는 개체의 집단 내 건강수준 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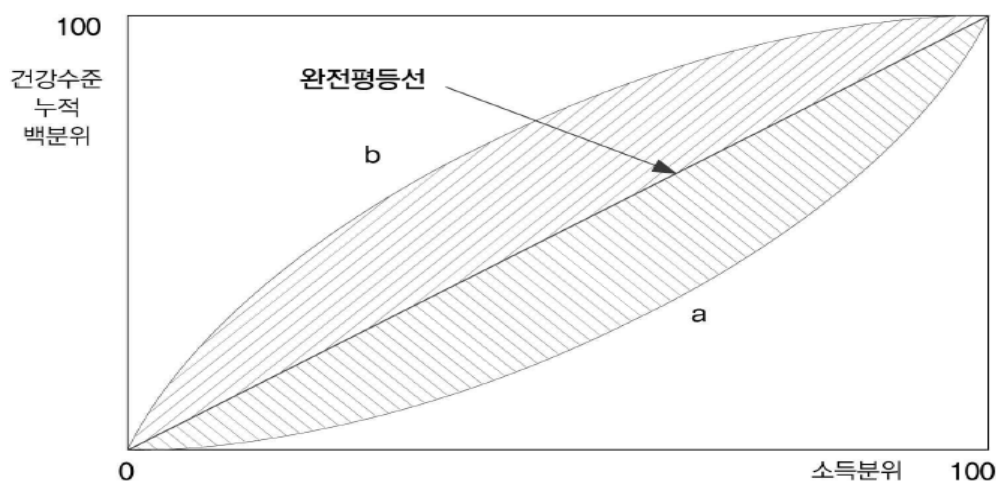
19) n = 개인의 수, y_i = 개인 i 의 소득, μ = 평균소득

적 백분위를 표시하는 집중곡선(concentration curve)을 그려 완전 평등선인 대각선과 집중곡선 간의 면적을 2배하여 산출하게 된다. O'Donnel et al.(2008)은 집중지수 산출 산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이한나, 2012, 58-59).

$$CI = 2 \left(\frac{1}{2} - \int_0^1 L_R(p) dp \right)$$

$$= 1 - 2 \int_0^1 L_R(p) dp$$

집중지수의 경우, 언제나 양(+)의 값을 갖는 지니계수와는 달리 양(+)과 음(-)의 값을 모두 갖는 특성을 지닌다(이한나, 2012, 59). 따라서 집중지수는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절대값이 클수록 불평등 수준이 큰 것으로 해석한다. 집중지수가 양(+)의 값을 갖는 경우 집중곡선이 대각선 아래에 위치하며, 이는 고소득층이 더 건강한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음(-)의 값을 갖는 경우 집중곡선은 대각선 위에 위치하며, 이는 저소득층이 더 건강한 것을 의미한다(그림 4).



[그림 4] 집중지수

다섯 째, 엔트로피 지수의 경우 총 3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엔트로피 지수는 타일(Theil, 1967)이 고안한 불평등지수로서 정보이론의 엔트로피라는 개념에서 파생되었다(정의철, 김진욱, 2007, 60). 이 때, 엔트로피(entropy)란 기대정보량(H), 즉 어떤 사건의 발생여부를 알기 이전에 기대되는 정보의 양을 의미한다(김경아, 2008, 91). 타일에 의해 고안된 엔트로피 지수는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generalized entropy: GE)라고 지칭되는데, GE(a)는 a의 값이 클수록 소득분포 상위의 소득차이에 대해 민감한 성질을 갖는다(이원진, 2012b, 169).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의 기본 산식은 다음과 같다(정의철, 김진욱, 2007, 60)²⁰⁾.

$$GE(\alpha) = \frac{1}{\alpha^2 - \alpha} \left[\frac{1}{N} \sum_{i=1}^N \left(\frac{y_i}{\mu} \right)^\alpha - 1 \right]$$

20) N=전체 가구 수, y_i = 가구 i의 소득, μ = 평균소득, α =각 소득 계층에 대한 가중치로 α 값이 작을수록 저소득층의 소득변화에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이 주어지며,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alpha=0, 1, 2$ 의 경우를 사용한다.

<표 5> 양적 연구논문의 연구방법 분류(중복)

구분	지니 계수	EQ -5D	엔트 로피 지수	분위	대수 편차 평균	Atkin son Index	Wolfson index	HIwv	Arrar Index	형평성 분해	GIE	집중 지수	Lee & Shin index	변이 계수	기 타
199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998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99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00	1	0	0	1	0	0	0	0	0	0	0	0	0	0	1
200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02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0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2004	1	0	0	1	0	0	0	0	0	0	0	0	0	0	1
2005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2006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2007	3	0	1	1	2	0	0	0	0	1	0	0	0	0	0
2008	2	0	1	0	0	1	0	0	0	0	0	0	0	0	0
2009	5	0	0	2	2	0	1	0	0	0	0	0	0	0	0
2010	4	0	0	1	0	0	0	0	0	0	1	0	1	0	1
2011	2	0	0	0	1	1	0	0	0	0	0	0	0	1	1
2012	3	0	1	1	1	0	0	1	0	0	0	2	0	0	1
2013	1	0	0	1	0	0	0	0	1	0	0	0	0	0	1
2014	2	0	0	2	0	0	0	0	1	0	0	0	0	0	3
계	26	0	3	12	6	2	1	1	1	1	1	4	1	1	12

4) 학술지 『한국사회복지학』 연구주제 동향 탐색(2013-2014)

본 절에서는 한국사회복지학회지의 최근 2년 동안의 연구대상 및 주제 동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사회복지분야에서 불평등 연구이외에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기 위함이다. 즉, 한국사회복지분야에서 불평등 연구가 크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과연 어떤 주제들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복지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학술지인 『한국사회복지학』을 선택하였다. 이는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서 사회복지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룬 논문들이 활발하게 수록되고 있는 대표적인 학술지이기 때문에 한국사회복지분야의 전반적인 연구경향을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 분석기간은 2013년과 2014년의 최근 2년이며, 총 105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2년 동안 한국사회복지학회지에 실린 논문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구주제는 ‘사회참여 및 적응’으로 총 105편의 논문들 가운데 16편을 차지했다(15.24%). 다음은 ‘사회복지 종사자 직무관련’으로 전체 105편의 논문들 가운데 10편으로 나타나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9.52%). 세 번째는 ‘사업 및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폭력 및 학대’로 전체 105편의 논문들 가운데 9편으로 각각 나타났다(8.57%). ‘건강’의 경우, 전체 105편 가운데 총 8편(7.62%)이 검색되었고, ‘척도 개발 및 연구방법론’과 ‘삶의 질’이 각각 6편으로 나타났다(5.71%). 이외에 ‘양육경험’, ‘돌봄 및 서비스’, ‘노동시장 및 취업’, ‘일·가정 양립’이 각각 5편으로 나타났고(4.76%), ‘빈곤’과 ‘사회복지실천’이 각각 4편(3.81%), ‘복지시설 및 지역사회’가 3편(2.86%), ‘기부’가 2편(1.90%)으로 각각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표 6>에 나타나 있다.

<표 6> 학술지 『한국사회복지학』 연구주제 분류(2013~2014)

구분	세부 내용	계
사회참여 및 적응	장애인 사회참여, 청소년 및 다문화가정의 학교적응, 노년기 사별 후 적응, 독거노인 홀로살기, 노인시설 적응, 이주민 생애사 경험, 노인 생활시간 배분 등	16
사회복지 종사자 직무관련	조직몰입·효과성, 이직의도, 전문성, 직무만족 등	10
사업 및 프로그램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 영유아, 장애아동, 노인장기요양 사업, 기초연금 평가 및 참여자 태도, 효과성 평가	9
폭력 및 학대	아동학대, 가정폭력, 클라이언트 폭력 등	9
건강	우울, 고독감, 자살생각, 자살시도, 건강이해력 등	8
척도개발 및 연구방법론	사회복지가치, 정신장애인 평가, 청소년 권력, 농인 문화적응, 정신장애인 관계 척도 등	6
삶의 질	삶의 만족도, 안녕감, 행복, 결혼만족도 등	6
양육경험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경험 및 부담, 부모역할, 미혼모 입양결정 과정 등	5
돌봄 및 서비스	여성의 이중돌봄, 돌봄노동 실태, 고령여성의 노부모 수발, 이용자 중심 서비스 경험, 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념 등	5
노동시장 및 취업문제	청년 노동경력, 빈곤여성가구주 취업경험, 장애인 고용 및 고령장애인 노동시장 이중차별, 은퇴 전후 재정안정성 문제 등	5
일·가정 양립	일·가정 양립정책 및 경험	5
빈곤	빈곤인식, 빈곤지속 기간, 자영업자 빈곤 등	4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의 관계성, 유동성, 임파워먼트 등	4
복지시설 및 지역사회	마을만들기,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 등	3
기부	종교와 기부행동 관계	2
기타	맹자, 사회복지운동, 공동체, 문제도박, 정의론, 복지담론, 일제 강점기 농민 복리 등	8
계		105

4.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불평등 개념 및 특성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불평등연구 동향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불평등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97년부터 2014년까지 18년 동안 한국사회복지분야의 불평등 연구 논문은 총 53편으로 나타났다. 1997년 1편, 1998년 2편, 2000년 1편,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각 해마다 2편의 불평등 연구가 수행되었고, 2006년에는 1편, 2007년 5편, 2008년 2편, 2009년과 2010년 각 5편, 2011년 4편, 2012년 8편, 2013년 3편, 2014년 8편의 불평등 연구가 각각 이루어졌다. 1999년과 2001년에는 불평등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기준에서 봤을 때, 한국사회복지분야의 불평등 연구의 총량은 매우 적은 편이지만, 1997년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불평등 연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사회복지분야에서의 불평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주요한 목표가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여 불평등을 제거 혹은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불평등에 대한 관심은 ‘필요’라기보다는 오히려 ‘의무’에 가까울 것이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사회복지분야의 불평등 연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해왔다는 사실은 현실의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의 학문적 특성 상, 사회현상의 예측 보다는 이미 발생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의 측면이 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의

주요 역할은 실천적이고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꾀하는 일이 된다. 무엇보다 오늘날 불평등과 같은 각종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 수립이 실증적 자료를 필요로 한다는 점은 학문적 차원의 연구가 질적으로 다양해지고 양적으로 많아져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사회복지연구에 있어서 현실의 불평등에 대한 학문적 차원의 관심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둘째, 테르보른의 불평등 유형에 기초하여 연구동향을 분류한 결과 전체 53편의 연구 가운데 생명력 불평등 연구로 분류된 논문은 14편으로 26.42%의 비중을 나타냈다. 이 가운데 건강불평등 연구가 14편 가운데 10편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71.43%), 의료불평등 연구 3편, 정보불평등 연구 1편으로 각각 분류되었다. 다음으로 직접적인 실존적 불평등으로 분류된 논문은 총 2편이 검토되었다. 하나는 정신지체장애인 혹은 부랑인 시설 수용자들에게 시행되는 강제 불임수술을 푸코의 (생명)권력 개념에 입각하여 사회적 타자에게 강제불임과 같은 자의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행해진 권력의 실체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한 연구였고(최원규, 2002), 다른 하나는 기혼여성의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전업주부)에 따라 가사업무 수행주체, 가정 내 다양한 사안에 관한 의사결정권 행사주체, 및 자금관리와 운용권 보유주체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고찰함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가정 내 성평등 기여도를 살펴본 연구였다(권승, 2003). 마지막으로 자원불평등 연구는 전체 53편 가운데 31편으로 58.49%로 전체 불평등 연구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소득불평등 연구가 28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90.32%), 소비불평등 연구 2편과 교육불평등 연구 1편이 각각 이루어졌다.

이처럼 테르보른의 불평등 유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사회복지분야 불평등 연구는 자원불평등 연구가 주를 이루며, 생명력 불평등 연구는 최

근 들어 관심을 받고 있으며, 실존적 불평등 연구의 경우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원불평등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생명력과 실존적 불평등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예컨대, 2004년 경제학자 칼라 호프(Karla Hoff)와 프리양카 팬디(Priyanka Pandey)의 연구결과(Wilkinson & Pickett, 2010, 145-147)는 이를 잘 보여준다. 그들은 인도 각지의 농촌에 사는 소년들 가운데 높은 카스트에 속하는 321명과 낮은 카스트에 속하는 321명을 뽑아 미로를 풀게 했다. 먼저 상대방의 카스트를 알지 못한 채 퍼즐을 풀었을 때에는 오히려 낮은 카스트의 아이들이 조금 더 잘 풀었으나, 이후 서로의 카스트를 공개적으로 알린 뒤 다시 실험을 반복한 결과 이번에는 카스트 간 격차가 나타났다. 즉, 낮은 카스트 소년들의 성취도가 급감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불평등은 단지 자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존적인 부분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생명을 위협하는 불평등의 위력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막론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Therborn, 2013, 25).

이러한 맥락에서 핵심은 학문적 차원에서 특정 주제로 연구가 편향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건강과 관련된 생명력 불평등 연구는 최근 들어 점차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존적 불평등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실증주의에 입각한 계량적 연구 중심의 학문적 풍토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즉, 소득이나 소비, 교육 등 자원불평등에 관한 연구는 관련 자료수집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이에 해당 개념에 대한 계량화/수치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건강과 관련된 생명력 불평등 연구가 점차 증가하는 것도 이러한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실존적 불평등의 경우, 그 개념 상 계량화하기가 어렵고, 이에 관련 척도도 미흡하며, 이러한 이유로 개념적 연구나 질적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

움을 겪게 된다. 즉, 태도 등과 같은 맥락의존적 행위나 속성은 수량화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Sayer, 1992, 278)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이미 척도가 개발된 개념이나 주제를 중심으로 계량적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계량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자원불평등과 같은 특정 연구주제로의 편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자원불평등 뿐만 아니라 생명력 불평등과 실존적 불평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보다 개방적이고 열려있는 학문적 태도와 풍토가 조성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방법에 있어서 전체 53편의 불평등 연구 가운데 경험적 연구가 48편으로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지니계수나 엔트로피 지수 등과 같은 지수(index)를 활용한 불평등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분류과정에서의 오류나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국사회복지분야의 불평등 연구가 양적연구와 특정 분석방법에 크게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서 반복해서 강조했듯이, 불평등이라는 개념은 매우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특정 연구방법만으로 불평등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불평등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사회복지실천의 측면에서 질적 연구방법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복지실천의 경우, 그 특성상 맥락(context)과 개별 상황이 중요한데 (Healy, 2005, 22), 양적연구의 일반화된 접근과 이해만으로는 부족함이 있다. 사회복지정책 역시 기본적으로 사회문제에서 출발함으로써 실천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은(구인회 외, 2010, 127) 맥락과 개별성을 중요시하는 질적 연구방법이 양적 연구방법만큼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결과 불평등을 주로 다양한 지수(index)를 활용하여 상대적 불평등으로 개념화하고 측정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개념과 측정의 측면에서 절대적 불평등과 상대적 불평등은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 의미 역시 서로 다르게 중요하다. 즉, 절대적 불평등의 크기는 (보건) 정책적 측면에서 중요하며, 상대적 불평등의 크기는 사회적·정치적 측면에서 중요성이 크다(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07, 33). 또한 강영호 외의 연구(Khang et al., 2004)에 따르면, 청년층은 교육수준에 따른 사망 불평등의 상대적 크기가 노년층에 비해 크게 나타났지만, 사망률의 절대 크기의 차이는 오히려 노년층에서 크게 나타났음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불평등의 측정방식에 따라 그 결과가 갖는 의미와 맥락은 크게 달라지며, 따라서 상대적 불평등 측정뿐만 아니라 절대적 불평등 측정을 활용한 불평등 연구 역시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술지 『한국사회복지학』의 최근 2년간의 연구주제 경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참여 및 적응(15.2%)’, ‘사회복지 종사자 직무(9.5%)’, ‘사업 및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8.6%)’, ‘폭력 및 학대(8.6%)’, ‘건강(7.6%)’, ‘척도 개발 및 연구방법론(5.7%)’, ‘삶의 질(5.7%)’ 등이 주요 연구주제들로 나타났다. 이외에 ‘양육경험’, ‘돌봄 및 서비스’, ‘노동시장 및 취업’, ‘일·가정 양립’에 대한 연구(4.76%), ‘빈곤(3.8%)’과 ‘사회복지실천(3.8%)’, ‘복지시설 및 지역사회(2.86%)’, ‘기부(1.9%)’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사회복지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핵심 주제들이며, 학문적 차원에서 사회복지학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학문으로서 정체성의 추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정체성의 추구로 인해 학문적 차원에서 연구주제가 협소해진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사회복지의 경우 정체성 추구는 주로 사회복지실천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앞서 분석한 한국사회복지학의

주요 연구주제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리고 사회복지실천과 함께 한국 사회복지학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은 빈곤 및 불평등의 완화와 해소,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 주택 정책 등을 매개로 국민 삶의 질적 개선, 사회권(복지권)의 구현 등을 목표로 국가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나병균, 2013, 107).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은 그 특성 상 경제학, 사회학, 행정학 등 타 학문과 주제가 공유되거나 겹치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사회복지학 분야에서 불평등이라는 연구주제가 미흡하게 다루어지는 주요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한국사회복지학은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정책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는데, 사회복지학의 정체성은 사회복지실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대부분의 사회복지학 개론서들이 연구주제보다는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과 같은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반면, 전술했듯이 사회복지정책은 그 특성 상 사회과학 전체의 연구주제로서 공유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이 보다 중심에 있는 한국사회복지분야에서 사회복지정책 분야는 상대적으로 다소 미흡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연구주제 중 하나인 불평등 역시 소극적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불평등을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쉽게 받아들이고 낙담한다. 하지만 이는 불가피한 현실(reality)²¹⁾이 아닌, 잘못된 신념(belief)²²⁾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한다. 즉, 오늘날 불평등이 지속되는 이유는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이 아니라 강력한 권력을 소유한 집단이 엘리트주의, 배제와 편견, 탐욕과 절망 따위를 지속

21)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적 소망을 방해하는 외적 저항에 붙이는 이름이며, 이 때 장애물들의 저항이 강할수록 그 장애물들은 그만큼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이라고 지적한다(Bauman, 2013, 41).

22) 돌링(Dorling, 2011)은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부정의와 관련된 잘못된 신념으로 ‘①엘리트주의는 효율적이다, ②배제는 필수적이다, ③편견은 자연스럽다, ④탐욕은 좋은 것이다, ⑤절망은 불가피하다’의 다섯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해서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며, 정부와 정계, 미디어, 학계는 이를 조장하는 핵심요인이라는 점(Dorling, 2010, 15-16)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한다. 이러한 부정의의 교의들은 큰 소리로 선언되는 확신들을 뒷받침하고, 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암묵적인 전제들이지만, 지금까지 이것들이 숙고되고나 검토된 적은 거의 없다(Bauman, 2003, 35).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불평등이 가져오는 파괴적 결과들과 이에 대한 대안들은 다양한 실증적 근거들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이다(Stiglitz, 2012; Wilkinson and Pickett, 2010; Therborn, 2013; Wilkinson, 2005; Dorling, 2011; 신광영, 2013; 이정우, 2010).

이처럼 불평등과 그에 대한 정당화가 하나의 잘못된 신념이라면,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이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불평등에 관한 부정의의 교의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일이다. 불평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불평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평등은 단순히 자연력이나 추상적 시장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결과이며, 특히 불평등의 주요 원천은 거시(경제) 정책의 실패에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Stiglitz, 2012, 186-187)²³⁾. 그리고 대부분의 정부정책의 근거에 대해 해당 연구자들의 영향이 크게 미친다는 점은 불평등 문제 해결에 있어서 연구자들의 노력과 책임을 요구한다.

1993년 50여개였던 사회복지학과가 2011년 기준으로 전국에 약 280여개의 사회복지 및 유사학과가 존재한다고 한다(백인립, 2013, 299). 이는 한국사회복지분야에서 불평등 연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의 연구 수행에

23) 스티글리츠(Stiglitz, 2012, 186)는 바로 이 지점에서 절망과 희망이 교차한다고 지적한다. 불평등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정책을 통해 보다 평등한 사회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희망적이지만,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는 정치과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절망적이다.

필요한 인적 자원과 인프라는 충분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풍부한 인적 자원과 인프라는 사회복지에 대한 전 사회적인 관심과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전 사회적인 관심과 요구의 배경에는 현실의 불평등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한국사회의 뜨거운 복지 논쟁과 현실의 불평등에 대해 한국사회복지학계는 구체적 해석이나 대안을 위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미약하지만, 이 연구보고서를 시작으로 향후 한국사회복지분야에서 불평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관련 연구들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영주, 정광호(2012).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과 건강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6(4): 265-291.
- 강영호(2003). 한국에서의 빈곤, 불평등, 건강. <빈곤과 건강>. pp.92-116. 한울 아카데미.
- 강우진(2012). 한국 민주주의에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정치적 효과. 한국과 국제정치. 28(2): 145-175.
- 강철희, 김미옥(2006). 한국사회복지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분석과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55: 55-81.
- 구인회, 손병돈, 안상훈(2010).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 김동일(2014). 분배정의론이란 무엇인가? 법철학연구. 17(3): 225-266.
- 김동진, 이소영, 기명, 김명희, 김승섭, 김유미, 윤태호, 장숙량, 정최경희, 채희란, 이정아(2013).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봉석(2008). 사회불평등 이론에 내포된 공정성 함의. 분쟁해결연구. 6(1), pp.7-24.
- 김비환(2002). 현대 자유주의적 평등론의 역사적 의의. 법철학연구. 5(2): 7-34.
- 김상돈(2011). 불평등 인식, 정치성향, 정당지지가 정치향의에 미치는 영향. 오토피아. 26(1): 141-171.
- 김웅진, 김지희(2000). <비교사회연구방법론>. 한울아카데미.
- 김종철(2013). 공화적 공존의 전제로서의 평등. 헌법학연구. 19(3): 1-38.
- 김정훈(2013). 드워킨과 코헨 간 비싼 기호 논쟁에 관한 소고. 범한철학. 70: 423-456.
- 김진현, 한지나(2014). 축전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노년기 우울증에 미

- 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65: 207-230.
- 김태성(2009). <복지와 경제>. 청목출판사.
- 김태성, 홍선미(2006). <사회복지개론>. 청목출판사.
- 김태성, 성경룡(2004). <복지국가론>. 개정판. 나남.
- 나병균(2013). 한국사회복지학의 정체성. 한국사회복지교육. 24: 101-125.
- 노병철, 변종현, 임상수(2000). <현대 사회와 이데올로기>. 인간사랑.
- 박상수(2014). 운 평등주의에 대한 비판. 제도와 경제. 8(2): 113-134.
- 박상혁(2011). 자유주의 정의론에서 평등과 책임의 요구: 드워킨의 롤즈 비판에 대한 응답. 철학연구. 95: 125-151.
- 박영신(2010). 인식 분절화가 낳은 ‘도덕 비극’에 대하여: 학문의 현실 왜곡 비판. 현상과 인식. 110: 15-35.
- 박호성 (1994). <평등론>. 창작과 비평사.
- 방하남(2004). 한국사회의 가족과 경제사회적 불평등. <현대 한국사회의 불평등>. pp. 19-53. 한울아카데미.
- 백승주, 금현섭(2014). 불평등의 다차원적 접근-측정 및 활용- 한국정책학회보. 22(2): 283-312.
- 백인립(2013). 사회복지학의 정체성: 21세기 한국사회와 사회복지의 역할.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6: 297-332.
- 변재욱, 김일중, 최봉제(2013). 소득불평등과 범죄발생에 관한 실증분석. 형사정책연구. 24(4): 329-366.
- 서환주, 김준일(2014). 소득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기회불평등의 누적적 증가에 대하여. 사회경제평론. 45: 231-275.
- 신광영(2013). <한국사회 불평등 연구>. 후마니타스.
- _____(2004).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을유문화사.
- 염수균(2004). 드워킨의 자원의 평등론. 법한철학. 35: 99-132.

- 이상봉(2009). 외환위기 이후 전개된 한국의 부의 불평등: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 이소정, 홍백의, 정경희, 이미숙, 손병돈(2008).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양호, 지은주, 권혁용(2013). 불평등과 행복: 한국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47(2): 25-43.
- 이정우(2010). <불평등의 경제학>. 후마니타스.
- 이창근, 최명섭, 김의준(2009). 외환위기 전후 지역경제 격차의 원인 분석. 국토계획. 44(1): 147-161.
- 이철, 장안식(2009). 복지레짐에 따른 범죄와 사회불평등의 결과와 사회적 함의.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 이철수(2013). <사회복지학 사전>. 헤민북스.
- 이웅, 임란(2014). 박탈경험과 불평등 인식 관계 연구: 우울의 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34(4): 93-122.
- 이한나(2012). <장애인의 건강불평등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동익(2006). <노직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_____(2005). <롤즈 『정의론』>.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장동진, 김만권(2000).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소극적 자유의 이상. 정치사상연구. 3: 195-220.
- 정원오(2010). <복지국가>. 책세상.
- 정해식, 김수완, 안상훈(2014). 다차원적 불평등의 세대간 특성: 현 노인세대, 베이비붐 세대, 이후 세대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63: 337-369.

- 조흥준(2003). 불평등과 건강. pp. 75-90. <빈곤과 건강>. 김창엽 엮음. 한울 아카데미.
- 진병운(2003). <루소 『사회계약론』 >.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Araar, A.(2009). The hybrid multidimensional index of inequality. Cahier de recherche working paper. 9: 45.
- Atkinson, A.(1970). On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Theory. 2: 244-263.
- Atkinson, A. and bourguignon, F.(1982). The comparison of multi-dimensioned distributions of economic statu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49(2):183-201.
- Bauman, Z.(2013). <Does the richness of the benefit us all?> Polity Press.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안규남 옮김(2013). 동녘.
- Bowles, S., Edwards, R., and Roosevelt, F.(2005). <Understanding capitalism: Competition, command, and change>. Oxford University Press. <자본주의 이해하기: 경쟁, 명령, 변화의 3차원 경제학>. 최정규, 최민식, 이강국 옮김(2009). 후마니타스.
- Callinicos, A.(2000). <Equality>. Polity Press. <평등>. 선우현 옮김(2006). 도서출판 울력.
- Coser, L. A.(1997). Masters of sociological thought: Ideas in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 Second Edition. <사회사상사>. 신용하, 박명규 옮김(2003). 시그마프레스.
- DiPrete, T. A. and Eirich, G. M.(2006). Cumulative advantage as a mechanism for inequality: A review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development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2: 271-297.

- Dorling, D.(2010). <Injustice: why social inequality persists>. The Policy Press. <불의란 무엇인가: 사회불평등을 지속시키는 다섯 가지 거짓말>. 배현 옮김(2012). 21세기북스.
- Dworkin, R.(2000). <Sovereign Virtue>. Havard University Press. <자유주의적 평등>. 염수균 옮김(2005). 한길사.
- Edward, G. G. (1997). <Theories of Social Inequality: Class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3rd edition. Harcourt Canada Ltd. <사회불평등: 고전 및 현대 이론>. 양춘 옮김(2003). 고려대학교 출판부.
- Esping-Andersen, G.(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olity Press.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박시종 옮김(2007).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Fajnzylber, P., Loayza, N., and Lederman, D. (2002). Inequality and Violent Crim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45(1): 1-39.
- Ferrer-i-Carbonell, A., Ramos, X. (2012). Inequality and Happiness: A survey. GINI Discussion Paper 38.
- Graham, C., Felton, A. (2006). Inequality and Happiness: Insights from Latin America.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4(1), pp.107-122
- Fitzpatrick, T. (2001). Welfare Theory: An Introduction. Palgrave Macmillan. <사회복지사를 위한 정치사회학>. 남찬섭, 김병철 옮김(2013). 나눔의 집.
- George, V. and Wilding, P. (1985). Ideology and Social Welfare. Routledge & Kegan Paul.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 남찬섭 옮김(1994). 한울아카데미.
- Giddens, A.(1971). Capitalism & modern social theory. <자본주의와 현

- 대사회이론>. 박노영, 임영일 옮김(2008). 한길그레이트북스.
- Grey, M. and Webb, S. A.(Eds.)(2009). Social work theories and methods. SAGE Publications Ltd. <사회복지학의 새로운 접근 : 철학적 토대와 대안적 연구방법>. 김기덕, 최명민, 이현정, 조성우 옮김(2012). 시그마프레스.
- Healy, K.(2005). Social work theories in context. Palgrave Macmillan.
- <사회복지사를 위한 실천이론>. 남찬섭 옮김(2012). 나눔의 집.
- Justino, P.(2005). Empirical applications of multidimensional inequality analysis. Poverty Research Unit at Sussex Working Paper. 23: 1-45.
- Khang, Y. H., Lynch, J. W. and Kapland, G. A.(2004). Health inequalities in Korea: Age and sex-specific educational differences in the 10 leading causes of death.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3(2): 299-308.
- Kelly, M. (2000). Inequality and Crim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cs. 82(4): 530-539.
- Kelly, L.(2006). Multidimensional inequalities in China. CERDI Working Papers. 1-15.
- Kolm, S. C.(1977). Multidimensional egalitarianism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1(1): 1-13.
- Kymlicka, W.(1990).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Oxford University Press.
- List, C. (1999). Multidimensional inequality measurement. Nuffield College Working Paper In Economics. 1-23.
- Marmot, M. (2004). The Status Syndrome. Henry Holt & Co. <사회적

- 지위가 건강과 수명을 결정한다>. 김보영 옮김(2005). 에코리브르.
- Mishra, R.(1981). Society and Social Policy: Theories and practice of welfare. The Macmillan Press. <복지국가의 사상과 이론>. 남찬섭 옮김(1996). 한울아카데미.
- Mullard, M. and Spicker, P. (1998). Social Policy in a Changing Society. Routledge.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박형신 옮김(2004). 일신사.
- Muller, W. (1993). Social Structure, Perception and Evaluation of Social Inequality and Party Preferences. In Krebs, D. & Schmidt, P. (eds). New Directions in Attitude Measurement. pp.94-117.
- Nozick, R.(1989). The examined life: Philosophical meditations. New York: A Touchstone Book.
- Nozick, R.(1974). Anarchy, Sate, and Utopia. NY: Basic Books.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자유주의 국가의 철학적 기초>. 남경희 옮김(1983). 문학과 지성사.
- Nussbaum, M.(2011). Creating capabilities. Cambridge: The Belknap Press.
- Pinker, R.(1971). Social theory and social policy. Heinemann Educational Books, Ltd.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김형식, 박순우 옮김(2000). 인간과 복지.
- Pierson, P.(1994). Dismantling the welfare sta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복지국가는 해체되는가?>. 박시종 옮김(2006).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Rawls, J.(1972). A theory of Justice. Oxford University Press. <정의론>. 황경식 옮김(2003). 이학사.

- Rimlinger, G. V.(1971). Welfare policy and industrialization in Europe, America and Russia. New York and London: Wiley and Sons.
-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옮김 (2009). 한울 아카데미.
- Rousseau, J. J.(1755). Discours sur l'origine et les fondements de l'inegalite parmi les hommes. <인간불평등 기원론> 주경복, 고봉만 옮김(2003). 책세상.
- Sayer, A.(1999). Method in Social Science. Routledge. <사회과학방법론: 실재론적 접근>. 이기홍 옮김(1999). 한울아카데미.
- Sen, A.(2002). Why health equity? Health Economics. 11: 659-666.
- _____(1999).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자유로서의 발전>. 김원기 옮김(2013). 갈라파고스.
- _____(1992). Inequality Reexamined. Oxford University Press. <불평등의 재검토>. 이상호 · 이덕재 옮김(1999). 한울아카데미.
- Stiglitz, J. E.(2012). The price of inequality. W. W. Norton & Company Inc. <불평등의 대가>. 이순희 옮김(2013). 열린책들.
- Therborn, G.(2013). The killing fields of inequality. Polity Press.
- Wilkinson, R. and Picket, K.(2010). The Sprit Level: Why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Bloomsbury Publishing. <평등이 답이다> 전재웅 옮김(2012). 이후.
- Wilkinson, R. G. (2005). The Impact of Inequality: How to Make Sick Societies Healthier. The New Press. <평등해야 건강하다>. 김홍수영 옮김(2008). 서울: 후마니타스.

사단법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건강할 권리를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며 실천하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우리 연구소는

우리 사회의 **건강담론과 대안**을 만들어 가는 민간 연구소로,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는 **독립연구기관**을 지향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으로

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향한 사회 변화의 큰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손을 잡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이 책자는 우리 연구소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단법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201 보성빌딩 4층

§ 전화 : 070-8658/8659-1848 § Fax : 02-581-0339

§ 누리집: <http://health.re.kr>

§ 전자우편: phikorea@gmail.com

§ 후원계좌 : 하나은행 199-910004-60804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